

석사학위논문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방향 연구

-한국어 교재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2011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최혜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방향 연구

-한국어 교재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ranslation of Vocabulary Intrinsic to
Korean Culture

-On Korean-English Translation
in Korean Language Materials-

201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최혜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방향 연구

-한국어 교재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ranslation of Vocabulary Intrinsic to
Korean Culture

-On Korean-English Translation
in Korean Language Material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최혜민

최혜민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12월 일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선행 연구	4
제 3 절 연구 대상과 방법	8
제 2 장 이론적 배경	14
제 1 절 번역 개념과 방법	14
1. 문화매개로서의 번역 전략	14
2. 스코포스 이론	16
3. 자국화 전략과 이국화 전략	19
4. Mona Baker의 단어 차원의 등가	21
제 2 절 한국 고유문화 어휘	24
1.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개념	24
2. 한국어 교육용 한국 고유문화 어휘 선정 기준	26
제 3 장 식생활 어휘의 번역 현황	30
제 1 절 교재 내의 분석 대상 어휘	30
1. 분석 대상 어휘 선정 과정	30
2. 분석 대상 어휘의 범주	31
제 2 절 번역 기법의 특성	32
제 3 절 식생활 어휘의 번역 기법과 실태	36
1. 음식명 및 식재료	37

1.1. 주식류	37
1.2. 부식류	43
1.3. 조미료류	49
1.4. 기호식품류	51
2. 식기 및 도구	53
3. 음식점 명칭	53
제 4 절 식생활 어휘의 번역 기법 분석 결과	54
제 5 절 식생활 요소의 번역 방식의 문제점	56
 제 4 장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전략	63
제 1 절 식생활 어휘 번역 방식의 해결 방안	63
1. 번역 기법과 전략의 정립	64
2. 번역 기술 내용의 정확성	68
제 2 절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전략에 대한 제언	71
1. 번역사의 자질	71
2. 국가 차원의 협조	74
3. 번역 이론의 선택	76
 제 5 장 결 론	80
 【참고문헌】	84
【부 록】	92
ABSTRACT	101

【 표 목 차 】

[표 1-1]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출간된 한국어 교육 기관 교재의 현황	1
[표 1-2] 분석 대상 교재의 번역어	9
[표 1-3] 분석 대상의 한국어 교재와 단어집 목록	10
[표 1-4] 교재 내에서의 번역 제시	11
[표 2-1] 한국어 교육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용어와 개념	24
[표 2-2] 번역학에서 제시한 용어와 개념	25
[표 2-3] 선행 연구의 문화 어휘 선정 기준	27
[표 3-1] 기존 연구의 식생활 어휘 범주 분류	31
[표 3-2]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번역 기법의 종류	33
[표 3-3] 주식류 중 ‘밥류’ 번역 기법 분석	37
[표 3-4] 주식류 ‘국수류’ 번역 기법 분석	40
[표 3-5] 주식류 ‘떡국류’ 번역 기법 분석	41
[표 3-6] 부식류 ‘떡볶이’ 번역 기법 분석	43
[표 3-7] 부식류 ‘삼계탕·설렁탕’ 번역 기법 분석	44
[표 3-8] 부식류 ‘김치’ 번역 기법 분석	45
[표 3-9] 부식류 ‘김치찌개·된장찌개’ 번역 기법 분석	46
[표 3-10] 부식류 ‘불고기’ 번역 기법 분석	48
[표 3-11] 부식류 ‘잡채’ 번역 기법 분석	49
[표 3-12] 조미료류 ‘고추장·된장’ 번역 기법 분석	50
[표 3-13] 기호식품류 중 ‘떡류’ 번역 기법 분석	51
[표 3-14] 기호식품류 ‘술류’ 번역 기법 분석	52
[표 3-15] 식기 및 도구 번역 기법 분석	53
[표 3-16] 음식점 명칭 번역 기법 분석	53
[표 3-17] 여섯 기법의 어휘 번역 적용 비율	54
[표 3-18] 식생활 어휘의 번역 기법 분석 결과	55
[표 4-1} 동일 어휘에 여러 번역 기법이 적용된 예	57
[표 4-2} 동일 교재 내에서의 기법 차이	57

[표 4-3] 동일 교재 내에서의 기술 내용 차이	57
[표 4-4] 번역 기법 내용의 적절성	58
[표 4-5] 로마자 표기의 오류	58
[표 4-6] 교재의 번역사(번역자)	5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부설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재를 출간하기 시작하여 지난 20년 동안 교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왔다. 초기에는 문법번역식에 의존하던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이 의사소통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재 또한 과제와 기능중심으로 구성된 교재가 편찬되었다(김영란, 2009:10). 이와 더불어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목표 언어권의 사회를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 내용이 포함된 통합형 교재가 편찬되었다.¹⁾

2000년 이후에는 점점 다양한 국가의 학습자를 고려하여 대학 부설의 한국어 교육 기관과 출판사, 국가 정부 기관에서 학습 환경과 학습자 층의 특성과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언어권별 교재²⁾를 발간하고 있다.³⁾

- 1) 신현숙(2009:p.51)에서는 2000년 이후의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특징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어 교육 기관의 급격한 증가로 각 교육 기관이 독자적으로 한국어 교재를 편찬하기 시작한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다양해지면서 한국어 교재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셋째,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재를 편찬하기 시작한다.
- 2) 민현식(2000)에서는 언어권별 교재란 학습자의 국적을 고려하여 제작된 교재로서 학습자의 모국어와 문화 차이를 배려한 교재 유형이라고 하였다. 진대연(1999)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어권별 교재에서 제시해야할 항목으로 학습자를 위해 발음, 어휘, 문법 영역 등이며 이는 단순 번역에서 오류 분석·대조 분석 차원까지 단계적으로 교재 내용을 구성하고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3) 국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한국어 교재는 언제나 다국어를 전제로 하여 개발되며 현재 국외용 교재로서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초급한국어1』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태국어 6개 언어로 출간되었다. (일본 현지 출판사를 통해 일본어로도 출판된 것을 포함하면 7개 언어) 2010년에는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를 추가 계획하고 있다(박정진, 2010:p.156).

[표 1-1]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출간된 한국어 교육 기관 교재의 현황

구분			종	권수
국내 출판 교재	대학 부설 기관	시리즈	20종	95권
		개별	10종	10권
	공공기관		4종	7권

한국어 교재의 번역은 이미 1870년대 초기 때부터 제시되었다.⁴⁾ 진대연 (1999)에서는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중 하나는 학습자의 모어 배경과 문화적 배경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언어권별 교재의 출판은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학습의 용이성을 위한 것이며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제작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재의 번역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정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듯하다. 교재 내에서 작게는 어휘의 오역과 동일한 단원 내에서 한 단어를 여러 의미로 해석, 로마자 표기의 오류 등이 나타났다. 크게는 문장의 문법적 오류, 화용론 차원 오류 등 교재 번역의 정확성이 낮게 나타난다. 번역 작업에 있어서 제기되는 번역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이혜승, 2008:128). 각 교재에서 번역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비교해 보면 번역 기술 내용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고기’를 A교재에서는 ‘roast meat’, B교재에서는 ‘barbecued beef’, C교재에서는 ‘grilled beef with various seasonings’로 설명하고 있다.

번역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교재가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번역을 통해 쉽게 얻게 된다. 특히,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는 언어뿐

	사설기관	시리즈	6종		19권	
		개별	4종		4권	
국외 대상 교재	언어권별 교재	영어권	8종	12권	34권	
		일어권	2종	3권		
		중국어권	2종	5권		
		러시아권	2종	6권		
		베트남	1종	2권		
		말레이시아	1종	1권		
		태국	2종	4권		
		몽골	1종	1권		
합계		63종		169권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2008, 김영란, 2009:p.57, 재인용)

4) 초기 한국어 교재의 한국어 문법서나 회화서는 외국인 선교사, 외교관, 또는 언어학자에 의해 영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등으로 간행되었다(이지영, 2007:p.160).

5) 방성원(2000)에서는 통합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비한자권의 학습자는 교재가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가장 많이 하였다.

만 아니라 문화 또한 낮은 상황에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교재의 영어 번역 설명에 상당히 의존할 것이다. 위의 예처럼 하나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여러 번역 기법을 통해 설명한다면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재 출판 기관은 번역에 대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번역은 언어와 함께 문화를 전달한다. 문화의 측면에서 번역은 자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와 관련된 번역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화가 되어가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교육하는 한국어 교육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자국의 고유문화를 자국의 언어 그대로 보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한국어 교재는 어떤 전략을 통해 어휘를 번역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 중 식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영어 번역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51)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는 재외동포의 국가 중 북미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높으며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2008)에서 조사한 ‘권역별 교재 현황’을 보면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국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미국 및 기타 영어권 지역에서 출간된 것이 가장 많다.⁶⁾ 해외에 있는 학습자 중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영어권에 포진되어 있는 현황과 더불어 표 [1-1]내용과 같이 국외 대상 교재를 보면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가 출판되었다. 그러면서도 대학 부설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간한 언어권 별·외국어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포함하며 한국어판만을 출간한 기관이라도 영어를 메타언어로 하여 교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교재가 없다면 학습자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 한국어 학습할 것이다.

6)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2008)의 연구 분석의 대상 교재를 포함해 수집한 교재는 총 3215권으로 제1권역(동북아시아)인 일본과 중국에서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제2권역(기타 아시아)은 9.8% 다음으로 제3권역(유럽)에서는 59권, 제4권역(영어권) 242권, 제5권역(라틴아메리카) 0권, 제6권역(아랍 및 아프리카) 5권이다.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주된 비율은 비록 재외동포이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권 학습자들이며 국내 한국어 교재의 번역은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⁷⁾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과 관련된 문화 영역에 초점을 두어 한국어 교재 내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영어 번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식생활 어휘의 번역 분석을 통해 영어 번역의 실례를 확인하고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 및 번역 전략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번역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교재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 연구

본 연구의 목표인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대한 번역 전략과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분야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관한 연구와 번역학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알아 볼 것이다.⁸⁾

한국어 교재에 번역 전략의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를 추출하고자 한다.⁹⁾ 한국 고

7) 김원보·변길자(2005;p.51)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인구의 약 25%가 영어를 모국어 또는 제1외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21세기 중에 영어상용 인구가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및 대중매체가 정보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의 90%정도가 영어이다. 경제협력기구(OECD)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이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식 문서들이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고 있다. 국가 및 개인 간의 접촉에서부터 국제회의까지 의사소통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영어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8) 본 연구의 내용 서술에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용어를 지칭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강현화(2002)에서 제시한 ‘문화 어휘’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9) 한국 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및 교재, 내용 등은 많은 연구자의 다양한 이론과 관점 아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언어문화와 관련한 경어법, 호칭, 속담, 관용어, 사자성어 등의 교육 내용과 항목을 다룬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단일어 형태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관한 연

유문화 어휘 선정과 관련한 한국어 교육계의 선행 연구는 박영순(1989), 민현식(1996), 박갑수(1998), 국립국어연구원(2000), 강현화(2002), 전미순·이병운(2009)이 있다.

박영순(1989)에서는 해외한국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의 기능과 역할, 한국어 속의 문화적 요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어 속의 문화적 요소를 5가지로 나누고 일반어휘 요소에서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를 14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화 교육은 해외에서 한국 문화의 재건과 보존,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의 국제화, 한국어의 통일, 한국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화어를 정리·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다.

민현식(1996)에서는 국어와 문화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연구하는 ‘국어 문화론’의 정립을 주장하였다. ‘국어 문화론’은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내국인에게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어를 배우려는 교포 2세나 외국인에게 국어 문화의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포 2세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며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고 외국인들에게는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런 국어 문화론의 연구와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어 문화론을 1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국어·한국어 교육현장에서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을 제시하였다.

박갑수(1998)에서는 외국어로서의 언어를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언어 항목뿐만이 아니라 문화항목도 마땅히 교수·학습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외국어 교육에 반영해야 할 문화적 요소를 크게 구조적인 요소와 운용적인 요소로 나누었으며 구조적 요소에는 특정 형태를 지니는 어휘와 문법이 해당되고 어휘에는 사회, 문화, 제도 등의 광의의 문화를 반영하는 단어가 해당된다. 언어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식교육이라고 하였다.

구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국립국어연구원(2000)에서는 한국인들이 널리 알고 있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14분야의 기초 용어 235 단어를 모아 뜻풀이하였다.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문화적 의미가 크고 용어의 고유성이 있어서 오늘 정보화와 세계화시대에 그대로 한국어의 형태로 보급 할 수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외국인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입문자들이 문화 기초 어휘를 알고 사용하여 세계인이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시대를 대비한 용어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하여 앞으로 영문 번역하여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래방’과 같이 현재 널리 알려진 용어 일지라도 아직 한국 문화로서 안정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어휘가 수록되었으며 현대문화의 요소가 배제되었다.

강현화(2002)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편찬에 있어서 내국인을 위한 국어사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며 고려해야 할 문화 어휘의 선정과 기술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문화 어휘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 8가지 선정 기준과 문화 어휘의 목록 330여 개를 주제별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사전의 기술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기술하고 해당 어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이나 관련 어휘의 제공, 해당 어휘의 관련된 삽화 제공 등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범위를 초급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 한국어 학습사전에서 문화 어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전미순·이병운(2009)에서는 기초적인 문화어휘의 학습은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초급 단계의 문화 어휘를 선정하기위해 한국어 사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와 한국어 교재를 통해 문화 어휘를 추출하고 범주를 나누었다. 그리고 문화 어휘를 활용한 문화 교육 방법 5가지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중급에서 고급에 해당하는 문화 어휘 목록 및 지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현재까지 한국어 교재에서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대한 번역 전략 및 실태 조사가 없었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선행 연구로서 번역학의 관점을 참고하고자 한다. 번역학에서는 문화 어휘에 대한 번역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번역학에서 문화 어휘의 번역 연구는 주로 문학 텍스트와 관련한 문학 작품 속에서의 번역 사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로는 이다현(2004), 김진옥(2006), 황정은(2007), 전윤정(2009), 김재희(2010)등이 있으며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대한 번역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번역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다현(2004)은 한국고유어휘와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문화 요소적 어휘 대응번역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한국 고유어휘와 고유명사를 텍스트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Nida(1964)가 제시한 역동적 등가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출간된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작품 및 문화재 등 실제 사례에 적용시킴으로써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문화적 관점에서 차이를 분석해 보고,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번역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로는 이다현(2004)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차이를 인정하고 작품의 독창성을 목표언어권 독자들이 원천 언어 독자들과 동일하게 느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문화어의 충분한 이해 후 원천어에 상응하는 만큼의 설명이 제시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다현(2004)에서는 한국문화를 수출하려면 한글을 영어로 음역하는 체제를 일정하게 보급 및 고정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옥(2006)은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판된 한국고전소설 14종을 선정하였다. 영역본 내 문화 고유어를 6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번역 사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고유명사의 번역, 특정 문화고유어의 번역, 속담 및 사자성어의 번역, 시간을 지칭하는 특정 문화 고유어의 번역, 도량형 단위의 번역, 언어사용 관습에서 비롯되는 표현 번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크게 직역, 의역, 자역하는 방법으로 정리했으나 그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며 번역 전략을 세분화시키지 못했다. 한국고전소설의 문화 고유어에 대한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윤정(2009)에서는 번역자 케빈 오록(Kevin O'Rourke)의 한국 문학작

품 영역본 중 작품 내에 담겨있는 문화고유표현을 한국어 현대단편소설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 문화고유표현의 개념 정의와 함께 단어차원과 구(句)차원으로 그 범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번역개념과 함께 여러 학자들의 기초적인 번역이론 뿐만 아니라 모나 베이커(Mona Baker)의 비등가 해결을 위한 번역전략이론을 살펴본 후 케빈 오록(Kevin O'Rourke)의 한국 문학작품 영역본 중 현대단편소설에서 나타난 한국문화 고유표현들의 범주에 따라 각기 사용된 번역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번역 사례에 대한분석을 제시할 뿐 더 나은 번역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김재희(2010)에서는 한국어-아랍어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문화 관련 어휘 번역 방법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도작 문화권의 아랍인 독자들과 번역사들에게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해 문화 관련 어휘의 영역에 따른 번역 방법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자료 분석을 평가하였다. 각 텍스트에 나타난 문화 관련 어휘 번역 방법 역시 텍스트의 기능과 번역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각각의 사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텍스트 기능에 따른 번역 전략과 방법 연구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문화 요소의 번역은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재와 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해 왔지만 교재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계의 교재와 사전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 3 절 연구 대상과 방법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전략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 대상 교재를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기준을 통해 분석할 교재를 선정할 것이다.

현재 발간된 한국어 교재 중 대학 부설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최근 2000년 이후에 출간한 정규과정의 통합형 주교재 및 단어집이다. 그 중 중급 이상의 교재를 단계별로 갖춘 기관의 교재를 선정하였다. 현재 대학 부설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많은 교재를 출간했지만 언어권별·외국어판 교재의 발간 현황은 아직 발전 단계이다.¹⁰⁾ 본 연구에서는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 영어권·영어판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어권별·외국어판의 한국어 교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적용된 여러 번역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어판 중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영어로 번역된 교재를 포함하였다.

대부분의 언어권별·외국어판 한국어 교재는 중급까지만 출간되고 있으며 한국어판 교재의 어휘 색인도 중급까지만 번역하고 있다. 이는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학습자라면 텍스트와 문법, 어휘, 예문, 지시문 등을 설명하는 메타언어가 한국어일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¹¹⁾

[표 1-2] 분석 대상 교재의 번역어

교재	외국어판의 번역어	한국어판의 번역어
한국어 1, 2, 3, 4	-	영어, 중국어
New 서강한국어 1A-2B	영어, 일본어, 중국어	-
New 서강한국어 3A-3B	-	-
서강한국어 4A-4B	-	-
New 서강한국어 1A-2B 문법·단어 참고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
New 서강한국어 3A-3B 문법·단어 참고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
서강한국어 4A-4B 문법·단어 참고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
배우기 쉬운 한국어 1-4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연세 한국어 1-3 ¹⁾	영어, 일본어, 중국어	-
말이 트이는 한국어 단어집 1-4	영어, 일본어, 중국어	-

10) 현재(2010. 8. 기준)대학 부설의 한국어 교육 기관 교재 중 서강대학교의 『NEW 서강한국어 문법·단어 참고서 1A-3B』, 『서강한국어 4A, 4B』,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 1-3』 등 이 언어권별 교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외국어판의 교재는 대부분 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다.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p.36)에서는 중급 교재에서부터 번역문이 제시 되지 않는 이유는 중급 학

[표 1-3] 분석 대상의 한국어 교재와 단어집 목록

발행 기관	교재명	출판년도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1	2005
	한국어 2	2005
	한국어 3	2005
	한국어 4	2007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New 서강한국어 1A	2008
	New 서강한국어 1B	2008
	New 서강한국어 2A	2008
	New 서강한국어 2B	2008
	New 서강한국어 1A 문법·단어 참고서	2008
	New 서강한국어 1B 문법·단어 참고서	2008
	New 서강한국어 2A 문법·단어 참고서	2008
	New 서강한국어 2B 문법·단어 참고서	2008
	New 서강한국어 3A 문법·단어 참고서	2008
	New 서강한국어 3B 문법·단어 참고서	2008
	서강한국어 4A 문법·단어 참고서	2006
	서강한국어 4B 문법·단어 참고서	2006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배우기 쉬운 한국어 1-4	200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1 - English Version	2007
	연세 한국어 2 - English Version	2007
	연세 한국어 3 - English Version	2007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단어집 1 - 영어판	2004
	말이 트이는 한국어 단어집 2 - 영어판	2004
	말이 트이는 한국어 단어집 3 - 영어판	2004

습자의 한국어 학습 수준을 전제로 하여, 모르는 낱말은 사전을 찾아 확인 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하였다.

분석 대상 교재 중 언어권별 교재는 『NEW 서강한국어 1A-3B』, 『서강한국어 4A, 4B』이며 영어판 교재는 『연세 한국어 1-3』과 『말이 트이는 한국어 단어집 1-4』이다. 한국어판 교재는 『한국어 1-4』와 『배우기 쉬운 한국어 1-4』이다. 분석 대상 교재 중 교재와 더불어 단어집을 발간한 기관의 교재는 단어집도 포함하였다. 『NEW 서강한국어 1A-3B』와 『서강한국어 4A, 4B』, 『말이 트이는 한국어 1-4』 교재는 단어집이 함께 구성되어 출판되었다.¹²⁾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범주 중 생활문화 영역의 ‘식생활 어휘’에 대한 번역 기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를 실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대부분 생활문화 중 식생활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식생활과 관련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여러 영역에 비해 다양한 번역 기법이 적용되어 나타난다. 전윤정(2009)에서는 ‘식생활’ 요소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은 쉬운 듯하면서도 번역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 특징을 나타내는 식생활 어휘는 외국인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식생활 어휘의 번역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의 어휘는 교재에서 영어로 번역된 부분에서만 추출한다.¹³⁾

[표 1-4] 교재 내에서의 번역 제시

교재	읽기	듣기 지문	지시 문	문화 설명	예 문	문법 설명	어휘 색인	표현
New 서강한국어 1A,1B	O	O	O	O	O	O	O	O

12) 이후부터는 분석 대상의 교재와 단어집을 통틀어 ‘교재’라고 지칭한다.

13) 서강대학교는 주교재와 단어집을 같은 란에 제시한 것이다. 문법 설명, 어휘 색인, 표현은 문법·단어 참고서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영어권	New 서강한국어 2A,2B		O		O	O	O	O	O
	New 서강한국어 3A,3B						O	O	O
	서강한국어 4A,4B						O	O	O
영어판	말이 트이는 한국어 단어집 1-4							O	
	연세 한국어 1, 2	O	O		O	O	O	O	O
	연세 한국어 3	O	O		O	O	O	O	O
한국어판	배우기 쉬운 한국어 1-4							O	
	한국어 1, 2		O					O	
	한국어 3, 4							O	

위 표는 분석 대상 교재 구성의 조직 중 영어로 번역 되어있는 부분을 제시하였다. 교재에서 한국어판 교재와 영어권·영어판 교재의 번역 비율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 한국어판 교재의 번역은 어휘 색인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한국어 1, 2』는 듣기 지문의 영어 번역문을 제시한다.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영어권·영어판 교재는 본문 텍스트, 문화 해설, 문법 설명, 듣기 지문, 예문, 어휘 색인 등 전체적으로 교재 내용이 번역되어 있다. 서강대학교의 초급 교재 『New 서강한국어 1A-2B』와 『연세 한국어1-3』은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집을 구성하는 문법 설명, 예문, 표현 등도 영어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를 통해 동일 기관 교재일지라도 급에 따라 교재 내용이 번역된 비율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초·중급 교재는 어휘색인이 번역되어 있으며 『배우기 쉬운 한국어』를 제외한 교재에서는 듣기지문을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중급 교재에서는 어휘 색인만을 번역할 뿐 듣기지문은 번역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식생활 어휘 번역 전략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식생활 어휘의 번역 전략 및 기법에 대한 연구의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스코포스 이론과 자국화·이국화 전략 및 번역 기법의 분석을 위한 Baker(1997)의 단어 차원의 번역 전략에 대

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식생활 어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워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 선정 기준에 따라 추출한 단어 차원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 중 식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을 비교·분석해 본다.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영어 번역 현황의 결과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식생활 어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전략과 함께 거시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번역에서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및 방향을 시사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연구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기술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번역 개념과 방법

1. 문화매개로서의 번역 전략

성기철(2004)에서는 언어는 본원적으로 그 자체가 문화라고 하였다. 언어는 인간의 삶의 한 모습이며 인간의 정신 작용 속에서 자신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드러내는 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문화는 본래 사회·문화적으로 달리 구성된 조건에 따라 규범화되고 특별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객관적인 모든 자연 현상을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관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마련이다(김효중, 2005:523). 그러므로 한 문화권의 구성원은 그 문화권이 창조한 문화에 영향을 받아 현실을 세계를 파악하고 해석한다. 즉, 다른 공동체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개념을 파악하고 그 공동체의 실세계를 이해한다는 뜻한다.

1980년대 초 부터는 기존의 언어학적 번역 개념과는 달리 문화를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표현의 틀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과 문화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김효중, 2005:523). 문화란 하나의 공동체가 특정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양식이며, 언어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표현의 틀로서 문화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이근희, 2005:247). 이처럼 문화권마다 가진 고유한 언어 체계와 문화의 상대성으로 인해 번역 작업에는 고충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은 출발어의 언어 기호를 다른 도착어의 언어 기호로 변화 시키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출발어와 도착어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바꾸어 놓는 행위로서의 번역은 다른 문화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

은 문화 매개체로서 두 나라의 언어와 함께 문화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G. Mounin(1963)은 번역은 주어진 문화 환경 안에서의 일련의 의미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고 번역이 일종의 법칙 없는 예술이라는 생각을 탈피해 하나의 언어, 문화체계를 또 다른 문화체계로 전이하는 제한과 법칙이 있는 활동으로 보았다(김미정, 2003:8). 번역은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언어를 전환하면서 의미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언어의 의미와 형식 그리고 기능을 출발어권에서부터 도착어권으로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가성¹⁴⁾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러한 번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번역사는 번역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번역 전략을 세워야 한다.

Wilss(1998)는 번역사의 결정은 ‘거시적 차원의 결정(macrocontextual-level decision-making)’과 ‘미시적 차원의 결정(microcontextual-level decision-making)’인 두 가지 층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정호정a, 2008:155). 거시적 차원에서의 결정사항은 ‘번역 전략(translation strategy)’이다. Lorsch(1992)에 따르면 ‘번역 전략’이란 “번역을 계획하고 번역의 목적을 결정하며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즉, 번역사가 어떤 목적을 가진 출발텍스트를 어떤 수용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반면 미시적 차원에서의 결정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번역 기법’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출발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의미의 중의성, 모호성, 복합통사구문, 수사학적 전략, 주제/논평 구조, 핵심정보 및 주변적 정보, 은유, 언어유희, 이이러니, 응집성 및 응결성, 신조어, 형용사와 명사간의 연어, 전치사 구 처리, 복합어, 문화간극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번역사가 어떤 ‘중개 기재(mediation devices)’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번역 기법’이다.

번역사는 두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의 매개자와 두 언어와 문화의 체계를 번역작업에 끌어들여 그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을 조절해 주는 조절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듯 두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매개자

14) 정호정(2008)에서는 등가란 두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의미가 형태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내용 면에서 동등하거나 강한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와 충돌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조절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번역사는 뛰어난 언어·문화적 능력을 갖춘 자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한국어 교육계의 교재에서 지향해야 할 식생활 어휘의 전략적 방향을 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어 교재에 적용된 어휘의 번역 기법에 대한 분석을 위해 번역 이론과 및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스코포스 이론

1970년 후반 Vermeer(1977)는 출발어와 도착어를 비교하던 방식인 전통적인 번역 작업처럼 언어학만으로 번역 과정을 설명하고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Vermeer(1977)는 이러한 언어학적 번역에서 벗어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도입하였다.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스코포스 이론(skopos theory)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가정을 토대로 한다.

첫째, 번역 행위(action of translating)는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번역 목적은 텍스트 독자에 따라 다양하다(Hantim, 2001, 김영주, 2009: 5-6, 재인용).

스코포스 이론은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번역 행위¹⁵⁾는 출발텍스트에 근거한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이은숙, 2009:65). 즉, 무엇보다도 번역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 방법과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번역사의 행위는 번역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상호 작용이며 또한 수신자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모든 번역에는 그 상황적 맥락과 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출발 텍스트를 번역하더라도 그 번역물은 다른 모습일 수 있고 수신자에

15) Nord(1997)에서는 번역행위는 번역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일의 범위로서 조언, 특정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경고, 문화관련 컨설팅 등 모든 형태라고 하였다(이중철, 2008:p.9).

따라 번역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오미형, 2007:193).¹⁶⁾ 번역은 상호작용의 성공을 위한 의사소통의 중개 행위로서 이 중개 행위가 성공적이기 위해서 번역사는 의사소통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정호정, 2008:120). 번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출발텍스트 뿐만 아니라 번역의 상황적 맥락, 즉 출발텍스트의 수용자, 번역물, 의뢰인, 도착텍스트의 기능 등 도착텍스트가 사용될 의사소통 상황을 둘러싼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스코포스 이론의 번역 목적과 번역 행위를 접목하여 Nord(1997)는 ‘번역 브리프(Translation Brief, TB)’라는 개념을 통해 번역사는 번역 시작 단계에서 구체적인 번역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번역 브리프란 번역사가 번역 수행과 관련하여 의뢰자부터 받는 명시적, 암시적 지시사항 일체이다(정연일, 2003:176). Nord(1997)는 번역 브리프가 포함하는 요소를 다음과 제시하였다.

- (1) 의도된 텍스트의 기능
- (2) 도착텍스트의 수신자
- (3) 도착텍스트의 수용 시점 및 장소
- (4) 도착텍스트가 전달될 매체
- (5) 도착텍스트 생산 또는 수용의 이유 혹은 동기

기능주의는 번역사가 다섯 요소의 번역 브리프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행할 번역 작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번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 준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번역은 스코포스에 이론에 입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 브리프를 통해 번역 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 교재에 제시된 어휘의 영어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를 번역 브리프에 적용하여 번역 작업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

16) 곽순례(2009:p.24)에서는 특정의 의사소통 의도를 텍스트에 표현하는데 이러한 의도가 그 목적을 성취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텍스트 수신인의 의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먼저, 의도된 텍스트의 기능과 연관지어보겠다.¹⁷⁾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번역한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의 용이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번역이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번역을 벗어나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교육은 학습자에게 올바른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데도 의의가 있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제시된 도착텍스트의 수용자는 한국 문화 학습에 목적을 둔 외국인 학습자이다. 한국 문화 경험이나 한국 문화의 지식 기반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학습자를 위해 어떠한 번역 전략을 세워야 바람직한 도착어로 도착텍스트를 생성하고 성공적인 문화 교육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주로 교실이며 참여한 학습자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의 의욕이 왕성한 때에 주로 교육을 받는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한국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고 모국의 문화와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적 이질성에 큰 포용력을 발휘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교재의 특징에 근거하여 교재 번역은 학습자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너지 요소가 되어야 한다. 번역사는 한국어 학습에 사전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교재의 번역을 신뢰하고 어떠한 여과 기능 없이 교재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번역이 제시된 궁극적인 이유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교재의 번역 요구한 이유를 고려하여 번역 작업에 반영해

17) 박영순(2003;pp.69-70)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① 목표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대략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② 母문화와 목표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③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과 언어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행동과 언어적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 ④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비교, 대조할 수 있다.
- ⑤ 목표언어가 속해있는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따라 목표 언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 ⑥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 문화와 목표언어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이해를 통하여 두 언어문화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와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야 한다.

3. 자국화 전략과 이국화 전략

로마시대부터 번역학의 주된 논쟁거리 중 하나는 출발어에 맞추어 충실하게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도착어에 맞추어 번역해야 하는가이었다. 위의 두 가지의 양분된 이론이 바로 ‘자국화 전략(domestication strategy)’과 ‘이국화 전략(foreignization strategy)’이다.

Schleiermacher(1819)는 당시 큰 흐름을 이루던 충실한 번역을 벗어나 진정한 번역사로서 수용자를 제자리에 두고 저자가 수용자에 접근하도록 하는 ‘자국화’와 저자를 제자리에 두고 수용자가 저자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이국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오미형, 2007:191).¹⁸⁾ 이러한 이론을 훗날 Venuti(1995)가 ‘번역사의 불가시성(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s)’을 소개하면서 좀 더 발전했다. 자국화 전략은 번역사가 도착텍스트에서의 ‘외래성’, 곧 수용자들이 느끼게 될 ‘낯섦’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잘 읽히고 텍스트 안에서 번역사가 보이지 않는 번역이며, 반면에 이국화 전략은 도착텍스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받아들여지게끔 목표 언어의 문화적 가치에 압력을 가해 자민족 이탈을 유도함으로써 수용자를 이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최대 출발어의 언어적인 형식과 그 안에 내포된 문화적인 정보를 살려 자국의 정서와 생소함을 표현해 수용자에게 신선함을 주도록 번역하는 것이다(성초림, 2009:49).¹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hleiermacher(1819)와 Venuti(1995)는 이전에 주목 받지 못하던 번역의 문화적 측면, 사회적 행위로서의 번역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연구가 시도되

18) Schleiermacher(1819)는 이 중 하나의 번역 방식만을 유일하다고 주장한 것을 아니나 독자를 제자리에 두고 저자가 독자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번역에 대해서 비판한바 있다.

19) 황지연(2007:p.129)에서는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의 개념은 직역과 의역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으나 이 두 쌍의 술어가 가지는 의미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직역과 의역이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자국화와 이국화는 언어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문화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었다. Venuti(1995)의 자국화 및 이국화 전략은 텍스트의 특정 부분에 대한 번역 방식뿐 아니라 번역할 텍스트의 선정부터 전체적인 번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번역방법의 선택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성초림, 2009:49). Venuti(1995)는 대부분의 번역이 자국화를 경계하며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생소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출발어 텍스트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번역자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것을 주장하였다(황지연, 2007:440). 이를 통해 도착텍스트는 타 언어문화를 형성하는 주요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고, 다른 한 문화가 강제적으로 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번역이란 출발텍스트를 목표 문화로 옮기는 행위라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지만 단순히 언어에서 언어로의 기호 변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원천텍스트의 언어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역시 고려해야 좋은 번역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이근희, 2003:5).

만일 언어가 일반적인 개념이나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분류된다면 출발어에서 도착어로서의 번역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출발어와 도착어의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는 번역사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특히 문화적인 요소가 출발 문화에만 속해있을 때는 정확한 등가어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번역사는 출발어권의 문화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번역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해야 한다.

한국어 교재의 텍스트 안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자국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번역할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가깝게 가져가는 번역 전략으로 가능하면 학습자가 낯설고 생소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다. 즉, 학습자의 모국어의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텍스트에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전체적으로 맥락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와는 상반되는 ‘이국화 전략’의 이론은 번역될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학습자가 낯설게 느끼도록 번역하는 것이다. 곧,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가진 한국어의 특성을 살려 학습자에게 텍스트가 자연스럽지 않게 번역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한국어가 외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전략이다. 번역사가 실제 번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

육인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번역사가 선택한 교재에서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전략을 접한 학습자가 훗날 한국어 교육계 이외에서 번역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다룸으로써 한국 문화에 미칠 파급 효과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국어 교육의 주된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두고 볼 때 자국화 이론과 함께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은 유창함,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지닌다. 그러나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과정에서도 반드시 자국화 전략이 옳은 전략일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한국인들이 형성해온 민족 고유의 문화 요소이자 산물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유산 가치를 알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어 교재의 번역에서 학습자가 한국 문화 요소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문화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서 실천하는 방향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4. Mona Baker의 단어 차원의 등가

학습자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 학습자는 상호 문화권 사이에 의미가 불일치한 어휘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 및 전통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출발어권과 도착어권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정할 때 번역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번역사는 출발어권의 언어 체계라든가 의미에 충실한 ‘정확성’을 추구할 것인지, 도착어권의 언어 체계와 문화에 적합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것인지 갈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번역사가 사용한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생

활 어휘번역의 교재 분석은 Baker(1992)가 제시한 단어 차원의 등가 이론을 참고하여 분석할 것이다. Baker(1992)의 단어 차원의 등가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상위 개념의 단어로 번역

이 전략은 많은 유형의 비등가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명제적 의미 영역에서 유용하다. 의미장의 계층 구조가 언어별로 달리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 전략은 동일하게 잘 적용된다.

2) 보다 중립적이며 덜 표현적인 단어로 번역하기

등가어라고 간주하는 단어가 감정이나 정서의 전달이라는 면에서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구체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나 그 정도가 약화되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번역 전략이다.

3) 문화를 대체해서 번역하는 방법

이 전략은 문화상 특수한 항목이나 표현을 명제적 의미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목표 독자에게 유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 언어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목표 언어 독자에게 친숙하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시킬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 그 중요한 이점이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 전략은 번역사가 번역을 의뢰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특권 정도와 번역물의 목적에 따라 전략의 사용 여부가 대부분 결정된다.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결정은 어느 정도 해당 공동체에서 우세한 번역의 규범을 반영하기도 한다. 언어 공동체에 따라 텍스트의 명제적 의미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전략을 허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

4) 차용어 또는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를 이용해 번역하는 방법

이 전략은 특히 문화상 특수한 항목, 현대적인 개념, 전문어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는 문제의 단어가 텍스트에 몇 번 반복되는 경우에 더욱 유용하다. 차용어는 일단 그것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

므로 보다 긴 설명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

5) 관련 단어를 이용해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

이 전략은 원천 항목에 표현된 개념이 목표언어에도 어휘화 되어 있지만 형태가 다른 경우에 사용하거나, 원천텍스트의 특정 형태가 목표언어의 자연스러운 용법보다 훨씬 빈번하게 쓰일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6) 관련이 없는 단어를 이용해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

원천 항목에 표현된 개념이 목표언어에 어휘화된 표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일부 맥락에서는 풀어쓰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 풀어쓰기 전략은 상위어를 수식하거나 원천 항목의 의미를 간단히 풀어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특히 문제가 되는 원천 항목이 의미적으로 복잡할 때 사용한다.

7) 생략하는 방법

생략 번역은 다소 과감한 번역 전략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맥락의 단어나 표현은 번역 상에서 생략하더라도 아무런 훼손됨이 없다. 특정 항목이나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가 텍스트 전개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장황한 설명으로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번역사는 문제의 단어나 표현을 간단히 생략하여 번역하기도 한다.

8) 삽화를 이용해서 번역하는 방법

어떤 단어가 도착 언어에 해당 등가어는 없지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 실재물을 지시하는 경우, 특히 공간의 제약이 있으며 텍스트를 짧고 압축적이고 요령 있게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선택이다.

제 2 절 한국 고유문화 어휘

1.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 용어를 제시한 이유는 한국어 교육과 번역학 두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용어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 연구 간의 어휘 범주도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제시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 연구의 연구 범위도 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개념화 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용어와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2-1] 한국어 교육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용어와 개념

연구자	용어	개념
박영순(1989)	문화적 기초어휘	한국의 문화와 관계가 깊어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 사회에 적용하도록 돕는 어휘
민현식(1996)	문화 어구 ²⁰⁾	국어 문화 요소로 간주되는 각종 어휘, 어구
박갑수(1998)	- ²¹⁾	사회, 문화, 제도 등 광의의 문화를 반영하는 단어
국립국어연구원 (2000)	한국 문화 기초 용어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한국인들이 익히 알고 있고 문화적 의미가 크며 용어의 고유성이 있어서 그대로 한국어의 형태로 보급할 수 있는 어휘
강현화(2002)	문화 어휘	한국어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어휘나,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어휘
전미순, 이병운 (2009)	문화 어휘	한국어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어휘나,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어휘

위의 선행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연구이다. 위의 표에 제시된 선행 연구 용어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어휘는 한국의 특징적이고 고유한 문화와 관련성이 깊다. 또한 문화 어휘는 한국의 문화를 반영하며 학습자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2] 번역학에서 제시한 용어와 개념

연구자	용어	개념
이다현(2004)	문화 요소적 어휘	-22)
김진옥(2006)	문화고유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와 함께 변천하고 발달해 온 고유한 사회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특정 어휘나 언어 사용 관습이 담긴 고유어
황정은(2007)	문화특수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공동체 내에서 인식되고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특정 어휘 및 관용구로서 언어사용 관습 및 문화적 요소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고유명사, 도량형 단위 및 문화관련 어휘 및 관용구를 모두 포함
전윤정(2009)	문화고유표현	출발어인 한국어에는 있으나 도착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 문화권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비롯하여, 한국 풍습 및 관습과 같은 문화적인 특성과 문화 배경을 함유하고 있는 어휘와 구
김재희(2010)	문화관련 어휘	원천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역사·사회·경제·정치·언어관습 등을 둘러싼 고유한 특정 문화에서 비롯된 어휘

- 20) 민현식(1996)에서는 ‘문화어구’ 개념은 박영순(1989)에서 제시한 ‘문화적 기초어휘’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 21) 박갑수(1998)에서는 외국어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요소로 구조적인 요소와 운용적인 요소로 나누었으며 특정한 용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 22) 이다현(2004)은 ‘문화 요소적 어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번역학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를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문화 어휘 개념과 비슷하게 번역학에서도 문화 어휘는 사회 공동체의 고유한 배경과 특징적 문화 요소를 담고 있는 어휘라고 개념화 하였다.

두 선행 연구에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타 문화권과는 다른 특징적인 한국의 문화 배경이 반영된 어휘로서 한국어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문화 요소를 담고 있는 어휘라고 개념화 한다.

2. 한국어 교육용 한국 고유문화 어휘 선정 기준

광범위한 문화 범주에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이고 고유한 문화 요소를 나타내는 어휘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휘의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선정을 위해 한국어 교육의 선행 연구에서 다른 선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교육과 달리 번역학의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수·학습의 범위가 중요하지만 번역학에서는 출발텍스트에 있는 주어진 어휘를 도착 텍스트로 번역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휘 선정 기준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국어 교육계의 선행 연구에서 다른 문화 어휘의 선정 기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어휘 선정에 관한 기준은 강현화(2002)와 전미순·이병운(2009)에서 찾을 수 있다. 박영순(1989), 민현식(1996), 박갑수(1998), 국립국어연구원(2000)²³⁾의 문화 어휘 선정 방식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범위 안에서 어휘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념과 범주를 먼저 규명하고 난후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문화 어휘의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²⁴⁾ 이에 반해

23) 귀납적인 접근을 통해 어휘 선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휘 선정 기준을 간헐적으로 다루고 있다.

24) 강현화(2002)에서는 이전에 제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는 주제를 분류한 후 이에 해당하는 문화

강현화(2002)와 전미순·이병운(2009)은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문화 어휘의 선정 기준을 세웠다.²⁵⁾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 어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3] 선행 연구의 문화 어휘 선정 기준

선행 연구	선정 기준
국립국어연구원(2000) ‘한국 문화 기초 용어’	①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한국인들이 익히 알고 있고 문화적 의미가 크며 용어의 고유성이 있어서 그대로 한국어의 형태로 보급할 수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수록 ② 잘 알려진 것이라도 자연물과 인명은 가능한 제외 ③ 시간적인 기준으로는 과거와 현대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가능하면 시간적인 지속성을 지녀 문화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을 우선하여 수록
강현화(2002) ‘문화 어휘’	①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연계된 것 ② 전통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 못지않게 현대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 ③ 의사소통과 현실적으로 밀착된 일상 문화 ④ 다른 나라에는 대당 표현이나 대당 지시물을 찾기 어려운 우리 문화 독창적인 것
전미순, 이병운(2009) ‘문화 어휘’	①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 어휘 ② 다른 나라 언어에 대당 표현이 있으나 한국어 의미와 다른 어휘 ③ 동일한 범주 내에서 문화 어휘와 함께 활용될 만한 일반 어휘 ④ 현대 문화 어휘를 비롯한 전통 문화 어휘

국립국어연구원(2000)은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러두기’를 통해 개괄적인 ‘한국 문화 기초 용어’의 선정 기준을 알 수 있다. 국

어휘를 분류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25) 강현화(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사전에 제시될 문화 어휘의 목록을 확정짓기 위해 세 가지의 분야에서 자료를 선정하였다. 한국어교육용 코퍼스에서 추출한 어휘 목록과 한국어 교재의 표제어 목록 그리고 기존 사전 7개의 표제어 목록(국립국어연구원 목록 포함)에서 문화 어휘를 선정하였다. 전미순·이병운(2009)은 초급 한국어 교재 3종을 통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를 선정하였다.

립국어연구원(2000)에서는 현대 문화 어휘는 선정 어휘 목록에서 가급적 제외하는²⁶⁾ 한편 강현화(2002), 전미순·이병운(2009)은 선정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와 전통 문화 어휘를 모두 포함한다.

강현화(2002)와 전미순·이병운(2009)의 ‘문화 어휘’ 선정 기준은 매우 흡사하다. 강현화(2002)의 선정 기준에서는 전미순·이병운(2009)의 세 번째 선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선정한 문화 어휘 목록의 주제별 유형 부분에서 외국인이 접하는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포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전미순·이병운(2009)에서는 강현화(2002)의 첫 번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미순·이병운(2009)의 문화 어휘 선정과 연구 목적이 초급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문화 어휘 교육 방안이므로 강현화(2002)의 첫 번째 기준은 연구 목적 속에 녹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의 선정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선별하기 위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²⁸⁾로서 한국 문화 교육의 목적과 연계성을 지닌 어휘이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 학습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한국 문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2000)에서 제시한 ‘한국 문화 기초 용어’는 한국학에서 다룰 법한 고급 수준의 전문적인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밑바탕이 될 만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어휘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한국 문화에만 존재하는 문화 요소로서 고유성을 지닌 어휘이다. 강현화(2002)와 전미순·이병운(2009)에서 문화 어휘를 선정하는데 있어 고려한 사항중 하나는 다른 나라에는 대당 표현이나 대당 지시물을 찾기 어려운 문화 요소로서 우리 문화 독창적인 것이어야

26) 국립국어연구원(2000)이 제시한 한국 문화 기초 용어는 일상생활의 어휘 보다는 ‘고사, 굿, 나전칠기, 단청, 대청, 반닫이, 사당, 솟대, 서낭당, 신주, 장지문, 터주, 홍살문’ 등과 같이 전통적이고 전문적인 어휘가 많은 편이다.

27)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선정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어디까지가 전통문화이고 **현대 문화**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한국 문화이고 외래문화인지 그 경계에 대한 분류는 무리일 것이다.

28)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선정된 어휘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어휘이다(조현용, 1999:p.6).

한다고 하였다. 한국은 중국·일본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있어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두 국가와 유사한 문화 요소가 존재한다.²⁹⁾ 비록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 전해진 문화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독특한 문화 양식과 가치관을 첨가하여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문화를 창조했다면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그러므로 비록 문화 형태는 비슷할지라도 한국에서 재해석되어 예부터 지속된 문화의 요소는 타문화권의 문화 요소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언어에서도 타국의 유사한 문화 요소를 지칭하는 어휘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와 같은 어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요소를 의미하며 타 문화권에서는 이와 같은 등가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들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 요소를 지칭하는 어휘들도 포함하여야 한다.³¹⁾ 강현화(2002)와 전미순·이병운(2009)은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어휘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를 포함하였다. 한국을 알리고 존중할만한 전통 문화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 요소도 다루어야 한다. 전통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라도 현재 사용률이 높지 않은 어휘는 언어를 통해 문화를 학습하는 대부분의 학습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휘 선정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9) 이민경(2009)에서는 각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사상 체계와 사유 방식을 살펴본 결과, 한자 문화와 유교 문화, 조화론적 세계관, 자연 친화 사상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30) 한국의 '한옥'과 중국의 '사합원'의 외관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를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국의 가옥의 공간 구조와 형태, 용도 등은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31) 안진숙(2010:p,3)에서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통 문화란 예부터 내려온 한국의 전통성이 강한 과거의 문화이며 현대 문화란 한국 문화 중에서 전통문화와는 차별적인 현대의 일상문화로서 가까운 과거로부터 현재와 연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제 3 장 식생활 어휘의 번역 현황

제 1 절 교재 내의 분석 대상 어휘

1. 분석 대상 어휘 선정 과정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한국 고유문화 어휘 중 식생활 어휘에 대한 번역 전략을 파악하고자 교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재 분석에 앞서 분석 대상이 될 식생활 어휘의 선별 작업을 실시하여 선정 기준을 통해 어휘를 추출하였다. 교재 분석 대상의 식생활 어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 1-4]를 참고하여 분석 대상 교재의 텍스트, 문화 해설, 듣기 지문, 예문, 어휘란 혹은 어휘 색인 등에서 영어로 번역된 식생활 어휘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위의 첫 번째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어휘 중 속담, 관용구 등에서 내포적 의미³²⁾로 쓰인 어휘는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속담이나 관용 표현은 직역하거나 설명으로 풀어 번역하는 것보다는 등가의 표현이 있을 때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다(전윤정, 2010:66).³³⁾

셋째, 같은 기관의 동일 급 교재에서 제시된 하나의 식생활 어휘에 적용

32) Leech, G. N.(1989: pp.9-23)은 「Semantics」에서 의미의 유형을 개념적 의미, 내포적 의미,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반영적 의미, 언어적 의미, 주제적 의미 일곱 가지로 분류한다. 내포적 의미는 개념적 의미에 부가적으로 가지게 되는 표현으로 개인, 집단, 또는 사회의 관점에서 낱말들이 지시하는 대상에 상상적인 특징을 첨가하여 나타나기도 한다(이석주, 2007:pp.166-167). 임지룡(1989)에서는 ‘내포적 의미’를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로 2차적 의미, 함축적 의미라고 하였다.

33) 속담은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데 비유적 기능을 함으로써 속담 속에 제시된 어휘는 개념적 의미보다 내포적 의미를 가진다. 곧, 속담 속의 어휘는 일차적 의미를 지니기 보다는 속담의 주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어 속담인 ‘누워서 떡 먹기’는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국어사전)이다.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lying on one’s back and eating rice cake’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영어권 화자에게는 단지 표면적인 의미만을 전달하게 되므로 영어로 ‘It is a piece of cake’으로 번역해야 속담의 뜻이 전달된다. 관용어의 경우에 관용어 속에 제시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 또한, 영어에 등가 하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직역하여 ‘to become pakimchi’로 번역한다면 의미를 제대로 전달 할 수 없으므로 ‘to get dead tired’로 해야 한다.

된 번역 기법이 같다면 하나의 분석 대상 어휘로 취급한다. 동일한 어휘일 지라도 적용된 번역 기법이 다르다면 개별 대상 분석 어휘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어휘에 각 교재에서 어떤 번역 기법을 사용하였는지 번역 현황을 밝히고자 함으로 동일한 번역 기법이 적용된 어휘는 하나로 간주한다. 동일한 기관의 같은 급의 교재에서 ‘음차’ 번역 기법이 적용된 어휘 중 로마자 표기에 차이가 있는 식생활 어휘는 개별 분석 대상 어휘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로마자 표기 비교 및 오류 실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해당 어휘 분석표의 번역란에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어휘 선정 기준을 토대로 식생활 어휘를 추출하였다. 번역 기법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어휘 선정을 통해 교재에서 총 91개의 식생활 어휘를 추출하였고 207개의 번역 사례를 얻었다.

2. 분석 대상 어휘의 범주

5종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 중 식생활 영역의 영어 번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번역된 어휘의 선별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장 2절에서 어휘 번역에 대한 실태를 서술하기 위해 추출한 어휘의 범주 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다. 식생활 어휘의 범주 분류는 식생활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표 3-1] 기존 연구의 식생활 어휘 범주 분류

연구자	범주 분류
박용수(1997)	· 요리하기 전의 식료품 · 요리하기와 음식의 맛 · 음식과 음식의 종류 · 술과 담배 · 식사와 식생활
신현숙 외(2000)	· 음식 이름 · 음식 재료 · 주방기구, 주방용품을 가리키는 어휘

	· 음식의 맛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어휘 ·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나 먹는 행위와 관련지을 수 있는 어휘
이순애(2005)	· 음식 이름에 관련된 어휘 · 식재료에 해당하는 어휘 · 미각이나 감각에 관련된 어휘 · 조리법 및 가공에 관련된 어휘 · 식기(食器) 및 도구에 관련된 어휘 · 섭취 및 소화와 관련된 어휘 · 음식점에 관련된 어휘
김애경(2010)	· 음식이름 · 식재료 · 미각에 관련된 어휘 · 부엌기구 및 조리방법 · 음식점에서 주문하기와 관련된 어휘 ·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된 어휘

본 연구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영어로 번역된 식생활 어휘 207개의 범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식생활 어휘의 네 가지 영역은 음식 이름에 관련된 어휘, 식재료 어휘, 식기 및 도구 그리고 음식점에 관련된 어휘의 영역이다. 식생활 어휘 영역별로 분석 대상 어휘 비율이 높게 제시된 영역으로는 음식 이름에 관련된 어휘가 86개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식재료에 관한 어휘로 2개 그리고 식기 및 도구 어휘 1개 마지막으로 음식점에 관련된 어휘 2개로 순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번역 기법의 특성

분석 대상 어휘에 적용된 기법을 살펴본 결과 식생활 어휘에는 여러 가지 번역 기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Baker(1992)의 ‘단어 차원의 등가’ 이론을 토대로 번역 기법을 크게 ‘음차, 직역, 문화대체어, 풀어서 설명하기, 혼합, 사전적 설명’ 6가지로 분류하였다.³⁴⁾ 번역 기법은 식생

활 어휘에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번역 기법이 적용된 후 식생활 어휘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추가 정보³⁵⁾’가 사용되었다. 이를 번역의 한 기법으로 보고 6가지 번역 기법을 세분화하여 총 11가지의 번역 기법을 식생활 어휘를 분류하였다. 번역 기법의 큰 틀인 6가지의 번역 기법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³⁶⁾

[표 3-2]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번역 기법의 종류

번역 기법	번역 기법(추가 정보)
음차	음차(추가 정보)
직역	직역(추가 정보)
문화대체어	문화대체어(추가 정보)
풀어서 설명하기	풀어서 설명하기(추가 정보)
혼합	혼합(추가 정보)
사전적 설명	-

‘음차’ 번역 기법은 Baker(1992)의 단어 차원의 등가 이론 중 ‘차용어’ 번역 방법과 연관된다. 이 기법은 학습자의 모국어인 도착어를 사용하여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그대로 재현하는 번역 방법이다. 이 번역 기법은 도착어권에 이에 등가하는 어휘가 없거나 적합한 표현이 없을 때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음차’ 기법³⁷⁾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번역함으로써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통해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의 이국적 분위기를 내비칠 수 있

34) Baker(1992)의 번역 기법에 사용된 용어가 길어 본 연구에서는 용이성을 위해 용어를 간단히 바꾸었다.

35) 교재 내에서의 번역 중에서 ‘추가 설명’으로 간주하는 실례는 다음과 같다. ‘음차’ 번역 기법 후 괄호나 대쉬(-)를 사용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넣은 경우, 하나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두 개 이상의 번역 기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번역 된 방법을 해당 번역 기법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추가 설명으로 설정한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1-4』 단어집에서 번역 기법과 함께 식생활 문화 어휘의 사진·그림을 제시한 방법은 ‘추가 설명’으로 간주한다.

36)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번역 기법은 식생활 어휘 범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기법을 분석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37) Fedorove(1953:pp.160-161)에 따르면 출발어를 차용하는 주된 이유는 출발어권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제도의 고유한 느낌과 색채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용을 한 후 번역이나 여타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차용을 통해 소리 효과를 전달하거나 ‘문화적 타자성(cultural Other)’이 번역을 통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 그러므로 어휘의 손상 없이 한국의 문화적 색채 보존이 가능하다. 음차 번역 기법이 적용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한국어에 서툰 초급 학습자들이 어휘를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해당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텍스트 내에서 여러 번 반복 될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쓰일 경우 내용의 흐름이 단절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직역’은 어휘를 어휘형태소³⁸⁾로 나누어 형태소가 가진 의미를 영어로 해석한 것이다. Baker(1992)의 단어 차원의 등가 이론 중 ‘관련단어를 이용해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역’은 번역사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배제되기 때문에 번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역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출발어의 어휘 의미를 도착어로 그대로 나타내면 도착어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미로 번역하기 쉽다(김권남, 2003:12-13). ‘직역’은 학습자가 출발어권의 어휘에 익숙하게 하기 보다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갖는 의미를 도착어권에 맞추는 학습자 중심의 번역 방식이다.

‘문화대체어’³⁹⁾는 Baker(1992)의 단어 차원의 등가 이론 중 ‘문화를 대체해서 번역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출발어인 한국 고유문화 어휘와 등가하는 어휘가 도착어에 없을 때 도착어권의 고유문화 어휘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나타내는 번역 기법이다. ‘문화대체어’ 기법은 ‘음차’와 달리 출발어인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문화적 색채를 보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학습자도 하여금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풀어서 설명하기’⁴⁰⁾는 Baker(1992)의 단어 차원의 등가 이론 중 ‘관련단어를 이용해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과 연관 있다. 이 기법은 한국 고유문

38) 이석주 외(2006:p.87)에서는 형태소를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로 나누었다.

39) Vinay and Darbelnet(1997:p52)의 ‘등가’를 확대·적용한 번역 방법이다.

40) 김도훈(2006:p.19)에서는 도착어 위주의 전략으로서 어족이 전혀 다를 경우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문체론적인 고려는 거의 없는 번역전략이기에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번역사는 도착어 독자의 인지적 축적물의 범위 및 깊이를 가급적 정확히 측정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도에 국한해 부연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화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휘를 단어 이상의 구로 설명하는 방법이 해당된다.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은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의미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어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풀어쓰으로써 출발어의 어휘가 지닌 음가를 그대로 전달 될 수 없으며 또한 출발어의 간결한 어휘를 도착어로 옮기면서 여러 개의 어휘로 늘어놓아 장황스런 설명이 되는 결함을 갖고 있다(노진서, 2007:139).

‘혼합’ 번역 기법은 Baker(1992)의 단어 차원의 등가 이론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법이다. 이 기법은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형태적 결합 규칙과 관련이 있다⁴¹⁾. 합성어의 어휘를 어근으로 나누고 각 어근에 다른 번역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합’ 기법은 하나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번역 기법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보통 출발어권 문화와 도착어권의 중간에 놓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 설명’은 Baker(1992)의 단어 차원의 등가 이론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법이다. 이 기법은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보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번역의 기술 내용이 문장 단위이다. 자세한 설명이 학습자가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설명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 보다 더 길어 도착텍스트를 장황하게 하며 또한 의사소통 시에도 용이성이 낮다.

‘추가 설명’은 Baker(1992)의 단어 차원의 이론 중 ‘차용어 또는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를 이용해 번역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다. 일반적인 번역과는 달리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번역은 출발어권의 역사, 인물, 사건 등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이에 관련된 출발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번역 기법에 따라 학습자에게 한국 고유문화 어휘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 부연 설명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41) ‘혼합’의 용어는 이다현(2004)에서 찾을 수 있다. ‘남대문’을 번역 기술한 ‘Nam Dae Monn’은 음역과 의미역을 합한 혼합 번역 방법이라고 하였다.

제 3 절 식생활 어휘의 번역 기법과 실태

본 연구에서는 11가지 번역 기법을 토대로 식생활 어휘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분석 결과 어휘에 적용된 분석 기법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 기법의 분석 작업은 실제적으로 식생활 어휘에 적용된 번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해 줄 것 이다.

번역 기법의 분석은 식생활 어휘 범주의 영역별로 진행하며 영역 안에서는 다시 어휘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식생활 어휘는 어휘 형태가 확장 되는 특징이 있다(신현숙, 2004:125). ‘밥’을 예로 들어보면 제1 유형으로 ‘밥’은 그 자체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다. 제2 유형으로는 다른 형태소 뒤에 ‘밥’이 결합한 ‘쌀밥’, 제 3 유형으로 ‘밥’ 뒤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한 ‘밥술’등 형태소의 결합에 따라 여러 어휘가 생성된다. 이처럼 한국의 식생활 어휘는 음식 재료나 ‘찜, 탕, 국, 찌개’처럼 음식의 조리 방법에 따른 형태소 또는 어근을 중심으로 어휘적 결합관계를 통해 만들어 지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식생활 어휘의 네 가지 영역 중 음식 이름과 식재료 어휘를 함께 제시하며 식기 및 도구 그리고 음식점 어휘 영역으로 제시하겠다. 분석 대상의 식생활 어휘 중 일부 번역 사례만을 제시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번역 사례 제시를 위한 식생활 어휘의 대상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에서 ‘사회 및 생활 상징’ 분야의 ‘식생활’ 분야에 선정한 11개의 음식 어휘⁴²⁾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추출된 어휘 중 3종 이상의 교재에서 제시된 어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 번역 사례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⁴³⁾ 식생활 어휘의 번역 사례 표 정렬은 식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

42)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경희대학교 디자인 연구원과 인터넷 설문조사, 국민여론조사 및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를 통해 수렴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발표했다. 우리 민족이 형성해온 문화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민족 문화 정체성에 바탕을 둔 문화상징을 말한다. 식생활 영역에 해당되는 어휘는 ‘김치, 떡, 전주비빔밥, 고추장, 된장과 청국장, 삼계탕, 웅기, 불고기, 소주와 막걸리, 냉면, 자장면’이다.

43) 번역 사례 분석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식생활 분야나 3종 이상의 교재에서 제시된 어휘가 아지만 번역 사례 비교에 필요성이 있는 어휘라면 같이 다루도록 하겠다.

다. 이는 동일한 식생활 어휘가 각 교재마다 어떤 번역 기법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써 나아가 번역 기법의 사용 비율을 통해 실제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식생활 어휘에 적용된 번역 전략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1. 음식명 및 식재료

음식 상차림의 용도별 분류법의 기준을 토대로 주식류, 부식류, 조미료류, 기호식품류 순으로 제시하겠다. 음식명의 어휘적 결합 관계는 식재료와 음식류의 어근과 연관이 있는 어휘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1. 주식류

한국의 주식은 쌀을 재료로 만든 ‘밥’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류가 있다. 주식류에서는 ‘밥류, 국수류, 떡국류’의 번역 기법을 살펴해보겠다.

‘밥’⁴⁵⁾은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주로 흰밥을 많이 먹지만 잡곡밥과 각종 채소류나 버섯, 어패류 등을 섞어 지은 독특한 계절식 밥이나 향토적 특색을 살린 별미식의 ‘밥’이 있다.

[표 3-3] 주식류 중 ‘밥류’ 번역 기법 분석

교재 ⁴⁶⁾	어휘	번역 기법	번역
연세1	밥	직역	rice
한국1	밥	직역(추가 정보)	rice, a meal, food
서강1A	김밥	음차(추가 정보)	Gimbap - rice rolled in laver with vegetables and meat
서강2A	김밥	풀어서 설명하기	rice rolled in dried laver

44) 각 기관마다 동일한 식생활 어휘에 다른 번역 기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 기법을 기준으로 어휘를 모아 분석한다면 동일 식생활 어휘에 대한 번역 기법의 비교와 실태 파악이 어렵다.

45)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밥’은 끼니로 먹는 음식인 ‘밥’의 의미한다.

서강2B	김밥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rice rolled in dried laver [Korean food]
서강3A	김밥	음차 (추가 정보)	Kimbab(rice rolled in dried seaweed)
연세1	김밥	음차	Kimbab
연세2	김밥	음차	kimbab
연세3	김밥	음차	Kimbab
한국1	김밥	음차 (추가 정보)	Kimbab(rice rolls)
말이1	비빔밥	음차	Bibimbap
말이2	비빔밥	풀어서 설명하기	rice hash
배우1	비빔밥	풀어서 설명하기	a rice hash
서강1A	비빔밥	음차(추가 정보)	Bibimbap - rice mixed with various ingredients
서강1B	비빔밥	음차(추가 정보)	bibimbap - rice mixed with various ingredients
연세1	비빔밥	음차	Bibimbap
연세3	비빔밥	음차	bibimbap
한국1	비빔밥	음차(추가 정보)	6과 bibimbap(a dish of mixed vegetables and rice) 12과 bibimbap
서강3B	돌솥 비빔밥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mixed rice and vegetables in a hot stone pot [Korean food]
한국3	전주비빔밥	풀어서 설명하기	boiled rice with assorted mixtures of Jeonju

『연세 한국어1』, 『한국어 1』에서는 ‘밥’을 ‘rice’로 직역하여 제시하였다. ‘밥’을 짓는 방법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특성에 맞추어 발달된 조리 방법이다. 영어는 ‘쌀’과 ‘밥’을 구분 짓지 않고 보통 ‘rice’로 통용한다. ‘밥’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boiled/steamed rice’와 같이 추가적인 설명이

46) 번역 사례 표의 교재명은 약호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단어집 1-4』는 『말이 1-4』, 『배우기 쉬운 한국어 1-4』는 『배우1-4』, 『NEW 서강한국어 1A-3B』의 교재·단어집과 『서강한국어 4A, 4B』는 『서강1A-4B』, 『연세 한국어 1-3』은 『연세1-4』, 『한국어 1-4』는 『한국1-3』과 같이 표기한다.

필요하다. 이는 한국에서는 주식인 ‘쌀’과 관련된 어휘가 영어권보다 세분화되고 발달되었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비롯된 어휘 발달은 차이는 문화적 요소와도 연관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연세 한국어 1-3』에서는 현대 한국 음식 중 대표적인 ‘김밥’을 모두 음차 번역 기법을 적용하였고 『NEW 서강한국어 1A, 2A, 2B, 3A』는 여러 번역 기법을 적용했다. 『NEW 서강한국어 1A』에서는 음차와 추가 정보를 기입하였고 『NEW 서강한국어 2A』는 풀어서 설명하기, 『NEW 서강한국어 2B』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고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기법으로 전환하였고 『NEW 서강한국어 3A』에서는 다시 음차와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으로 번역하였다. 『NEW 서강한국어 1A』는 ‘김밥’을 음차로 번역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김밥’이 야채와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라고 기술하였다. 요즘 ‘김밥’의 속 재료가 다양해져 소고기김밥, 참치김밥, 치즈김밥 등이 새로 생겨났지만 초급용 교재에서는 변화된 형식보다는 ‘김밥’의 기본 조리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김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살펴보면 ‘김밥’의 주재료인 ‘김’을 『NEW 서강 한국어1A』에서는 ‘laver’, 『NEW 서강한국어 2A, 2B』는 ‘died laver’, 『NEW 서강한국어 3A』는 ‘died seaweed’라고 번역하였다. 동일 기관에서 출간된 교재에서 ‘김’에 대한 번역의 일관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한영사전에서는 ‘김’을 ‘(green, dry) laver; seaweed’이라고 하고 영한사전에서는 ‘laver’는 ‘파래, 바닷말’이고, ‘seaweed’는 (김·미역 등의) 해조, 해초으로 나와 있다.⁴⁷⁾ 이것은 영어권의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 해조류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국가로 해조류의 어휘가 발달하지 않아 ‘김’에 대한 영어 대응어는 없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 어휘를 각 교재에서 다른 어휘를 대칭시킨다면 학습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동일한 기관에서 출간된 『NEW 서강한국어 1A』에서는 ‘김밥’의 로마자표기를 ‘Gimbap’이라고 『NEW 서강한국어 3A』에서는 ‘Kimbap’으로 표기하였다.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서 음절의 초성 자음 ‘ㄱ’은 로마

47) YBM. Allinall 통합사전 <http://www.ybmallinall.com>

자 표기법으로 ‘G’로 표기하는 것이 규칙이므로 ‘Gimbab’이 알맞은 표기이다.

‘비빔밥’은 총 8번의 출현 중에서 음차 번역 기법이 3번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음차와 추가 설명을 포함한 기법이 3번, 풀어서 설명하기가 2번 나타났다.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비빔밥’은 외국인들에게 손꼽히는 한국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명성처럼 모든 기관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고 있으며 음차 기법을 다수 사용하였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1』에서는 음차 번역을 사용하여 ‘비빔밥’을 기술한 반면, 『말이 트이는 한국어 2』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기를 사용하였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1』에서도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을 사용하여 ‘비빔밥’을 밥을 재료로 한 해시(hash)⁴⁸⁾라고 기술하였다. 풀어서 설명하기를 사용하여 ‘비빔밥’을 기술한 내용이지만 그 기술 내용은 문화대체어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고유한 음식을 설명하였다. 『NEW 서강한국어 3B』에서는 ‘돌솥 비빔밥’을 뜨거운 ‘돌솥에 담긴 비빔밥’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부가 설명을 덧붙였으며 『한국어 3』에서 ‘전주비빔밥’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전주식 밥(boiled rice with assorted mixtures of Jeonju)이라고 하였다.

[표 3-4] 주식류 ‘국수류’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1	냉면	풀어서 설명하기	cold noodle dish
서강2A	냉면	음차	Naengmyeon
서강4A	냉면	직역(추가 정보)	Korean food, cold noodles
한·생·어	냉면	직역	iced noodles
한국1	냉면	음차(추가 정보)	naengmyun(a cold noodle dish)
말이3	물냉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cold noodle mixed with fresh (as of food)
서강2A	물냉면	음차	Mullaengmyeon
연세1	물냉면	음차(추가 정보)	mulnaengmyeon (cold noodles)

48) ‘hash’란 고기와 감자를 잘게 다져 섞어 조리한 요리이다(a hot dish of cooked meat and potatoes that are cut into small pieces and mixed together)(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2008).

말이3	비빔냉면	풀어서 설명하기	cold noodle mixed with seasonings
서강4A	비빔냉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Korean food, noodles with red pepper paste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식생활 요소에 포함된 ‘냉면’은 『말이 트이는 한국어 1-3』에서 모두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과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기법으로 제시되었다.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과 추가 설명은 학습자가 어휘를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서강한국어』 교재는 급마다 다른 번역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NEW 서강한국어 2A』에서는 ‘냉면’과 ‘물냉면’을 모두 음차로 표기하였는데 『서강한국어 4A』에서는 ‘냉면’을 직역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비빔냉면’은 풀어서 설명하고 추가 정보를 주었다. 동일한 교재라도 어휘에 서로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NEW 서강한국어 2A』와 『한국어 1』은 ‘냉면’에 음차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 ‘naengmyeon’, ‘naengmyun’으로 나타내었다. 문화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중 이중모음 ‘ㄱ’은 ‘yeo’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NEW 서강한국어 2A』에서 표기한 ‘naengmyeon’이 옳은 표기이다. ‘물냉면’은 『NEW 서강한국어 2A』가 ‘Mullaengmyeon’, 그리고 『연세 한국어 1』은 ‘mulnaengmyeon’으로 표기하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 ‘물냉면’의 표준 발음이 [물랭면]이므로 ‘ㄱ’의 발음이 겹쳐서 나기 때문에 ‘ll’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NEW 서강한국어 2A』가 표기한 ‘Mullaengmyeon’이 맞는 표기이다.

[표 3-5] 주식류 ‘떡국류’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2	떡국	혼합	rice-cake soup
배우2	떡국	혼합	rice-cake soup
배우4	떡국	음차(추가 정보)	Tteokguk(rice cake soup)

한국1	떡국	음차(추가 정보)	ttukgguk(rice-cake soup)
한국2	떡국	음차	tteok-guk

‘떡국’은 설에 먹는 음식 중의 하나로 가래떡을 얇게 썰어 만든 한국 고유 음식이다. ‘국’은 고기, 생선, 채소 따위에 물을 많이 붓고 간을 맞추어 끓인 음식⁴⁹⁾으로서 찌개보다는 국물이 많은 음식이며 다른 사람과 나눠먹는 음식이 아닌 개개인의 그릇에 먹는 음식이다. ‘국’은 영어로 ‘soup’⁵⁰⁾으로 문화대체어 번역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국’은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며 ‘soup’의 경우에는 주 메뉴가 나오기 전에 식사 시작 먹는 에피타이저(apetizer)로서 한국의 식사 순서와는 다른 개념의 단어이다.

대부분 교재에서는 ‘떡’과 ‘국’의 두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떡국’에 혼합 번역 기법을 적용하였다. ‘국’과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음식 어휘의 번역을 살펴보면 ‘국’과 같이 대부분의 어휘는 문화대체어 ‘soup’으로 번역되었다.

‘떡’은 『말이 트이는 한국어 3』과 『연세 한국어 2』에서 풀어서 설명하기를 적용하여 ‘rice-cake(rice cake)’로 나타내었고, 『말이 트이는 한국어 3』과 『NEW 서강한국어 2A』 그리고 『연세 한국어 1』에서는 ‘국’을 문화대체어인 ‘soup’으로 번역하였다. 합성 어휘인 ‘떡국’은 번역 기법에서도 어근 ‘떡’과 ‘국’으로 분리 되어 기법이 적용되었다. ‘떡’은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이 적용되었고 ‘국’은 문화대체어 기법이 적용되어 ‘rice-cake soup’으로 기술되었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4』와 『한국어 1』, 『한국어 2』에서는 ‘떡국’은 음차 기법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1』 교재에서의 로마자 표기는 ‘ttukgguk’으로 표기하였는데 ‘떡국’의 표준발음은 [떡꾹]이지만 국어 음운변화로 발생한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모음 ‘ㅡ’는 ‘eo’으로 수정해야한다. ‘떡국’의 표기는 『배우기 쉬운 한국어 4』와 『한국어 2』에서 기술한 ‘Tteokguk’, ‘tteok-guk’ 표기가 알맞은 것이다. 『한국어 2』는 음절 사이

49)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50)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ition © HarperCollins Publishers 2009: Soup is liquid food made by boiling meat, fish, or vegetables in water

에 음차 번역한 ‘tteok-guk’에 붙임표(-)를 붙여 음절을 표시하여 주었다. 같은 대학기관의 교재이지만 『배우기 쉬운 한국어 2』와 『배우기 쉬운 한국어 4』에서는 ‘떡국’을 각 혼합 기법과 문화대체어 기법을 사용하여 다른 번역 기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2. 부식류

주식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식류는 조리법에 따라 분류된다. 한국의 요리는 끓이는 방법과 섭취하는 방법에 혹은 넣는 재료에 따라 ‘국, 탕, 찌개, 찜’ 등 다양하게 표현한다(김재희, 2010:69). 교재 분석 결과 한국 음식 부식류의 이름은 주재료와 조리 방법을 중심으로 음식 이름과 찌개, 국, 탕 등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고유 음식 어휘가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6] 부식류 ‘떡볶이’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3	떡볶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a dish of sliced rice cake, meat and spicy red sauce
서강3B	떡볶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spicy rice cake [Korean food]
서강4A	떡볶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korean food, rice cake with red pepper paste
연세3	떡볶이	음차	5과 본문 tteokbokki 9과 예문 ddukbokki
한국2	떡볶이	음차(추가 정보)	tteokbokki(a spicy panfried dish of rice cakes with meat and vegetables)

‘떡볶이’의 번역 기법에는 음차와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이 나타났고 교재에 따라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떡볶이’의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과 추가 정보 내용은 ‘떡볶이’의 매운맛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⁵¹⁾ 『NEW 서강한국어 3A』는 ‘떡볶이’를 ‘spicy rice cake’, 『서강한국어 4A』에서는 ‘rice cake with red pepper paste’라고 기술하였다. 동일한 음식을 서로 다르게 서술한다면 학습자가 이를 다른 음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번역 기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세 한국어 3』에서 ‘떡볶이’가 두 번 제시되었는데 5과 본문에서는 ‘tteokbokki’로 표기되었으며 9과 예문에서는 ‘ddukbokki’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었다. ‘떡볶이’의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tteokbokki’이다. 동일한 기관의 교재에서 다른 표기법을 사용하여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 3-7] 부식류 ‘삼계탕·설렁탕’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서강1A	삼계탕	음차(추가 정보)	Samgyetang - chicken broth with ginseng
서강2A	삼계탕	풀어서 설명하기	hot chicken soup with ginseng
서강2B	삼계탕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hot chicken soup with ginseng [Korean food]
연세2	삼계탕	음차	Samgaetang
한·생·어	삼계탕	풀어서 설명하기	chicken broth with ginseng
한국1	삼계탕	음차(추가 정보)	samgyetang(a kind of chicken soup)
서강3B	설렁탕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beef soup with rice[Korean food]
연세2	설렁탕	음차(추가 정보)	Sulreongtang(beef and rice soup)
한국3	설렁탕	음차(추가 정보)	Seolleongtang; a kind of beef soup with rice

사전식으로 ‘탕(湯)’은 ‘국’의 높임말로서 명확한 구분은 없고 다만 한국

51) 주식류, 조미료류, 기호식품류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은 모두 부식류에 해당한다. 또한, 떡볶이의 원조인 궁중떡볶이는 옛 궁궐에서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으므로 부식류에 해당된다(doopedia 두산백과).

고유의 말로는 ‘국’이며 한자를 받아들인 말로는 ‘탕’이다(doopedia 두산백과). 이처럼 한국어 교재에서의 번역 기법을 살펴보면 ‘탕’은 대체로 ‘국’과 같이 ‘soup’으로 번역되었다.

‘삼계탕’은 닭에 인삼, 대추, 생강, 마늘 등의 재료를 넣고 푹 고와 먹는 고아 만드는 여름철의 대표적인 보양음식이다. ‘삼계탕’을 기술하기 위해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과 추가 정보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삼계탕’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 주로 인삼을 넣은 닭탕이라고 하였다.

『NEW 서강한국어 1A』, 『한국어 1』은 ‘삼계탕’의 로마자 표기를 ‘samgyetang’으로 표기하였고 『연세 한국어 2』에서는 ‘Samgaetang’으로 기술 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이중모음 ‘ㄷㅔ’는 ‘ye’로 적는 것이 옳으므로 『한국어 1』이 기술한 ‘Samgyetang’이 올바른 표기법이다.

‘설렁탕’은 소의 여러 부위를 함께 넣고 푹 끓인 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든 음식이다(doopedia 두산백과). 음차 번역의 추가 정보와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에서 사용한 어휘 설명을 보면 공통적으로 주재료인 소뼈를 고아 만든 탕과 밥을 함께 먹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세 한국어 2』는 ‘설렁탕’을 ‘Sulreongtang’으로 표기를 하였는데 『한국어 3』에서 제시한 ‘Seolleongtang’이 올바른 로마자 표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탕’의 문화대체어는 ‘soup’으로 쓰이고 있다. 『NEW 서강한국어 1A』에서 제시한 ‘설렁탕’의 설명 내용은 ‘탕’을 ‘broth’라고 번역하였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는 ‘해물탕’을 제시하였는데 ‘해물탕’의 ‘탕’을 ‘seafood broth or soup’으로 기술 하여 ‘broth’와 ‘soup’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broth’는 물이나 스톡(stock)에 육류나 생선 또는 채소 등을 넣고 약한 불에서 끓인 육수의 일종(doopedia 두산백과)이며 ‘broth’에 쌀이나 곡류와 같은 재료가 들어가면 ‘soup’이라고 한다(Wikipedia). 그러므로 ‘해물탕’을 기술할 시 ‘broth’를 사용하여 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 3-8] 부식류 ‘김치’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2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 the Korean pickled

			vegetables
서강1A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Korean traditional spiced cabbage
서강1B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 - Korean traditional spiced cabbage
서강3A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Korean food)
연세1	김치	음차	Kimchi
연세3	김치	음차	Kimchi
한국1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 (Korean pickled vegetables)
말이1	김치	음차	Kim-chi
말이3	묵은 김치	풀어서 설명하기	heavily fermented kimchi
한국2	배추김치	음차(추가 정보)	baechu kimchi(cabbage kimchi)

반찬 가운데 한국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인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서 문화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치’는 이미 한국의 발음 그대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음차 기법이나 음차와 추가 정보 기법을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김치’는 한국 음식으로서 우수성과 명성이 높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음식 어휘이다. 또한, ‘김치’의 번역 기술에서도 한국의 전통음식을 타나내는 형용사 ‘traditional’을 사용하였다. ‘김치’의 종류와 재료는 다양하고 발효음식으로서 독특한 보존과 저장 방식을 사용한다. 대부분 교재의 번역 기술에서도 이러한 ‘김치’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추가 정보에 김치의 맛은 맵고 특징으로서 발효된 음식임을 기술하고 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는 ‘묵은 김치’를 ‘오랫동안 발효시킨 김치 (heavily fermented kimchi)’라고 하여 오래된 김장 김치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김치’의 주재료가 배추인 ‘배추 김치’는 음차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추가 정보로 ‘배추’를 설명하기 위해 ‘cabbage’라고 기술하였는데 영어의 ‘cabbage’는 양배추를 뜻하므로 영어에서 배추를 의미하는 ‘chinese cabbage’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표 3-9] 부식류 ‘김치찌개·된장찌개’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서강1B	김치찌개	혼합	kimchi stew
연세2	김치찌개	혼합	Kimchi stew
한국1	김치찌개	음차(추가 정보)	Kimchi jjigae(a kind of stew)
한국2	김치찌개	음차(추가 정보)	Kimchi jjigae(a kind stew made with kimchi)
말이2	된장찌개	풀어서 설명하기	beanpaste pot stew
말이3	된장찌개	혼합	bean-past stew
배우1	된장찌개	풀어서 설명하기	bean paste pot stew
연세3	된장찌개	혼합	bean paste soup

‘김치’와 ‘찌개’가 합쳐진 형태의 ‘김치찌개’에서도 ‘된장찌개’와 달리 ‘김치’는 음차 번역 기법이 사용된 것을 보면 ‘김치’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치찌개’의 ‘김치’는 모든 교재에서 음차로 번역하였으며 ‘찌개’는 문화대체어로 바꾸거나 음차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고유 음식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김치’는 음차 번역을 하여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지만 ‘찌개’는 다소 어려운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사용한 전략이라고 본다. 『한국어 1』과 『한국어 2』에서는 ‘김치찌개’를 음차 번역한 후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음식 정보를 제공하였다.

‘된장찌개’를 어휘적으로 나누어보면 ‘된장’과 ‘찌개’로 어근이 나누어진다. 콩으로 만든 한국의 전통 장인 ‘된장’의 ‘된장’은 모두 풀어서 설명하기 전략이 사용되었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된장찌개’의 경우 ‘김치찌개’에 적용한 번역 기법과 달리 ‘pot stew’라고 하였는데 이는 ‘된장찌개’의 강한 토속적인 이미지로 인해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조리되는 음식으로 여겨지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재는 주로 ‘찌개’를 문화대체어 ‘stew’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찌개’는 국물을 국보다 적게 잡아 고기, 채소, 어패류 등 각종 식재료를 넣어 끓인 반찬의 일종이며 ‘stew’는 재료를 한데 섞어 소스 팬에 넣고 장시간 푹 끓여 만드는 요리로 개인 식사의 주된 메인 요리이다. 각 나라

의 문화 체제를 음식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공동체 문화 특징이 상차림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찌개’는 모두가 함께 먹는 음식이고 ‘stew’는 서양의 개인 식사에서 주요리이다. 또한 한국의 ‘찌개’는 전통적으로 흙으로 만든 뚝배기에 요리를 하며 ‘stew’는 금속으로 만든 조리 도구를 사용한다.

[표 3-10] 부식류 ‘불고기’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배우4	갈비	풀어서 설명하기	roasted ribs
서강1A	갈비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style barbecue ribs
서강1B	갈비	음차(추가 정보)	Kalbi - Korean barbecue ribs
서강2A	갈비	직역(추가 정보)	ribs(Korean food)
연세1	갈비	음차	galbi
한국1	갈비	직역	a rib
말이2	불고기	풀어서 설명하기	roast meat
서강1A	불고기	음차(추가 정보)	Bulgogi - broiled beef in a sauce with vegetables
서강1B	불고기	음차	Bulgogi
연세1	불고기	음차	bulgogi
한국1	불고기	음차(추가 정보)	6과 bulgogi(bargecued beef) 12과 bulgogi.

‘갈비’는 소나 돼지 따위의 갈비를 양념하여 구운 음식이다. ‘갈비’는 재료의 부위이자 영어권 음식의 음식명이기 때문에 『NEW 서강한국어 2 A』와 『한국어 1』에서는 직역을 통해 ‘갈비’를 번역하였다. 『NEW 서강한국어 1A, 1B』의 ‘갈비’에 사용된 풀어서 설명하기와 음차의 추가 정보 번역 기술에서는 문화대체어 ribs를 사용하여 한국식의 구운 갈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갈비’의 첫 음절 초성이 ‘ㄱ’이므로 로마자 표기는 『연세 한국어1』, 『한국어1』에서 제시한 Galbi’가 올바른 표기이다.

불고기는 한국의 전형적인 전통 음식 중의 하나로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으로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불고기’의 다섯 번역 사례 중 네 개의 번역사례에 음차 기법이 적용된 것을 보면 교재에서는 한국에 온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도 이미 ‘불고기’를 알고 있다고 예상하여 음차 기법 번역하여 어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1] 부식류 ‘잡채’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3	잡채	풀어서 설명하기	a mixed dish with vegetables beef and clear noodles
서강1B	잡채	음차(추가 정보)	Japchae - mixed dish of vegetables and sliced meat
서강2A	잡채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mixed vegetables and noodles dish (Korean food)
한국1	잡채	음차(추가 정보)	jabchae (a mixed dish of vegetables, meat, and noodles)

예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잔칫상에 꼭 올라오는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잘게 썰어 볶은 것에 삶은 당면을 넣고 버무린 음식이다. 초급 교재인 『NEW 서강한국어 1B』와 『한국어 1』에서는 음차 번역 후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 교재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과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잡채’의 번역 기법과 부가적인 설명의 기술 내용을 보면 잡채는 야채와 고기 그리고 면을 함께 버무린 음식이라고 하였다.

1.3. 조미료류

한국의 음식 맛을 내는 기본인 ‘장(醬)’은 한국의 고유한 기호식품으로 이중 ‘고추장’, ‘된장’이 대표적인 조미료이다.⁵²⁾

52) 농림수산부(1995)는 전통식품에 대한 영어 표기 통일화를 권장하는 시안을 밝혔는데 ‘고추장’은 외국의 ‘Hot sauce’나 ‘chilli sauce’와 구분하기 위해 ‘Korean hot pepper sauce’로 쓰고 ‘된장’은 ‘Soybean paste’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표 3-12] 조미료류 ‘고추장·된장’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3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thick soy-paste mixed with red pepper
배우2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hot pepper sauce
서강3B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red pepper paste
연세2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red pepper paste
한국3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hot pepper paste
연세2	된장	풀어서 설명하기	soy paste
연세3	된장	풀어서 설명하기	bean paste

사전에서는 고추는 영어로 ‘red pepper; hot pepper; cayenne pepper’이다. 고추장은 ‘gochujang, red pepper paste’, ‘thick soypaste mixed with red pepper; Korean hot pepper paste’⁵³⁾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래 ‘hot pepper’는 캄사이신이 포함된 모든 고추의 종류’를 이르는 말이므로 여기에는 피망도 포함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hot peeper’보다는 ‘red pepper’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 ‘고추장’을 ‘thick soy-paste mixed with red pepper’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풀어서 설명하기 번역 기술은 문제점을 낳는다. ‘고추장’을 잘 모르는 학습자는 위의 번역 기술만을 읽으면 ‘고추장’은 ‘된장’과 ‘고추’를 섞은 걸쭉한 조미료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된장’은 콩의 품종 중 대두로 발효시킨 식품이다. ‘대두’는 간장을 만들 때 쓰는 콩으로 영어로는 ‘soybean’이라고 한다. 사전에서는 ‘된장’을 ‘doenjang, (fermented) soybean paste’(ET-house 능률 한영사전, 2006), ‘doenjang; soybean paste’(doopedia 두산백과)로 표기하고 있다.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을 사용한 『연세 한국어 2』에서는 ‘된장’을 ‘soy paste’로 『연세 한국어 3』에서는 ‘bean paste’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였다.

53) 두산동아 영한사전

1.4. 기호식품류

‘떡’은 한국의 고유한 음식 중에 하나로 떡류는 곡식가루를 찌거나 삶아서 익힌 음식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중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떡은 통과의례와 각종 명절 때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으로 한국에 깊이 토착화되었다.

[표 3-13] 기호식품류 중 ‘떡류’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서강2A	떡	풀어서 설명하기	rice cake
연세2	떡	풀어서 설명하기	rice cake
한국2	떡	음차(추가 정보)	tteok(rice cake)
말이3	떡	풀어서 설명하기	rice cakes
말이2	가래떡	풀어서 설명하기	stick of rounded rice cake
말이3	백설기	풀어서 설명하기	steamed white rice cake
말이3	송편	풀어서 설명하기	rice cake steamed on a layer of pine needles
말이3	수수경단	풀어서 설명하기	a kind of honey cake made of glutinous kaoliang
말이3	쭈떡	풀어서 설명하기	cake made of rice flour and wormwood paste
연세2	전병	문화대체어	pancake
말이3	인절미	풀어서 설명하기	cake made from glutinous rice covered with bean powder
말이3	진달래화전	풀어서 설명하기	fried-azalea cookies
말이3	흰떡	풀어서 설명하기	white, bar-shaped rice cake

그러나 교재에 나타난 한국의 고유한 음식인 ‘떡’은 『한국어 2』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이 적용되었다. ‘떡’의 주재료인 ‘쌀(rice)’과 ‘떡’과 비슷한 음식 중에 하나인 ‘케이크(cake)’를 결합한 형식의 복합어를 만들어 ‘떡’을 번역하였다.

‘가래떡, 수수경단, 쭈떡, 인절미, 진달래화전, 흰떡’을 보면 ‘떡’의 번역 기법은 대부분 풀어서 설명하기가 사용되었다. 번역 내용을 보면 각 종류

별 ‘떡’의 식감과 재료, 맛 또는 제조 과정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지는 떡의 총칭인 ‘전병’은 곡물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지지는 것으로 밀가루에 달걀·버터·설탕 등을 섞어 프라이팬에 얇게 구운 ‘pancake’(doopedia 두산백과)로 대체하였다. 한편 ‘전병⁵⁴⁾’의 일종인 ‘진달래화전⁵⁵⁾’은 조리 과정, 식감, 재료, 조리 방법도 다른 문화대체어 ‘cookies’로 기술하였다.

[표 3-14] 기호식품류 ‘술류’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서강3B	막걸리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rice wine
한국4	막걸리	음차(추가 정보)	Makgeolli, raw rice wine
배우2	소주	음차	soju

한국의 ‘술’은 탁주, 청주, 소주로 나뉜다. 한국에는 주로 곡주 계통의 술이 많은데 그 중 ‘막걸리’는 마구 걸렀다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NEW 서강한국어 3B』에서는 ‘막걸리’를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을 사용하였다. ‘막걸리’를 와인에 비유하여 ‘한국식의 쌀 와인’이라고 번역하였다. 『한국어 4』는 ‘막걸리’에 음차 번역을 적용하고 ‘정제하지 않은 쌀 와인’이라고 부가 설명을 덧붙였다. ‘소주’는 곡주의 증류식 술로 요즘 다양한 연령층이 즐겨 마시는 대중화된 술이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2』에서는 ‘소주’를 음차 번역하여 제시하고 있다.

54) 화전은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전을 부치듯이 지저서 대추나 쪽갓을 이용하여 꽃 모양 장식을 하여 만든 떡으로 잔치상이나 명절에 주로 먹는 음식이다. 봄에는 진달래화전, 여름에는 장미화전, 가을에는 감국화전, 겨울에는 대추를 이용한 화전을 만들어 계절에 따라 재료를 달리하여 계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특히 봄에 화사하게 핀 진달래로 만든 화전을 으뜸으로 친다(doopedia 두산백과).

55)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게 빚은 다음 진달래 꽃잎을 얹어 기름에 지저 먹는 음식이다(doopedia 두산백과).

2. 식기 및 도구

‘식기 및 도구’ 영역은 부엌에 두고 쓰는 가재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찬장, 뚝주, 숯, 화로, 번철, 주걱, 국자, 석쇠, 식기 따위를 이른다.

[표 3-15] 식기 및 도구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1	아궁이	음차	Agoog-i
배우4	아궁이	문화대체어	a fireplace

교재에 제시된 식생활 영역의 도구에는 ‘아궁이’가 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1』에서는 음차 기법을 사용하여 ‘아궁이’를 나타내었고 『배우기 쉬운 한국어 4』에서는 서양식 벽난로에 빗대어 문화대체어를 적용하였다. 한국의 ‘아궁이’는 서양식 벽난로처럼 방을 따듯하게 하는 난방의 기능을 하지만 숯 또는 가마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만든 구멍으로 한국의 식생활과 관련이 깊은 어휘이다.

3. 음식점 명칭

음식점 명칭 영역에서는 한국의 음식을 파는 장소와 관련된 어휘가 포함된다.

[표 3-16] 음식점 명칭 번역 기법 분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2	분식점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snack bar
한국2	분식집	풀어서 설명하기	a snack place

교재에는 분식점과 분식집을 제시하였다. 이 두 어휘는 국수류, 빵, 만두 따위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둘 다 통용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분식집’이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다. 두 어휘 모두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이 적용되어 나타났으며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임을 설명하고 있다.

제 4 절 식생활 어휘의 번역 기법 분석 결과

본 연구 분석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식생활 어휘의 범주를 세 영역으로 나누고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을 살펴보았다. 번역 기법의 분석 작업은 교재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 중 식생활의 번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교재의 실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기존의 교재에 제시된 번역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 교재에서는 식생활 어휘를 다양한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2장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번역 기법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토대로 식생활 어휘의 분석 결과를 여섯 가지 번역 기법을 통해 개괄적으로 적용된 번역 기법을 보면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이 48.8%로 전체 어휘의 절반정도에 적용되었고 다음으로는 ‘음차’ 번역 기법이 31.4%로 높게 나타났다. 두 기법 다음으로 높게 적용된 번역 기법의 사용 비율로 나열하면 ‘문화대체어(8.7%)’, ‘직역(4.3%)’, ‘혼합(6.3%)’ 번역 기법 순으로 나타나지만 번역 기법 간에는 사용 비율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전식 설명’이 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7] 여섯 기법의 어휘 번역 적용 비율

번역 기법	어휘 수(개)	백분율(%)
음차	65	31.4
직역	9	4.3
문화대체어	18	8.7
풀어서 설명하기	101	48.8
혼합	13	6.3

사전식 설명	1	0.5
총 합	207	10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번역의 11가지 기법이 식생활 어휘 번역에 사용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18] 식생활 어휘의 번역 기법 분석 결과

번역 기법	어휘 수(개)	백분율(%)
음차	22	10.6
음차(추가 정보)	43	20.8
직역	6	2.9
직역(추가 정보)	3	1.4
문화대체어	14	6.8
문화대체어(추가 정보)	4	1.9
풀어서설명하기	77	37.2
풀어서 설명하기(추가 정보)	24	11.6
혼합	11	5.3
혼합(추가 정보)	2	1.0
사전식 설명	1	0.5
총 합	207	100

교재에서 식생활 어휘 번역을 제시하는데 총 205개의 식생활 어휘 중 ‘풀어서 설명하기’가 77개의 번역 사례(37.2%)에 적용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음차와 추가 정보’가 함께 제시된 번역 기법이 43개(20.8%)의 식생활 어휘를 번역하여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세 번째로는 ‘풀어서 설명하기와 추가 정보’가 함께 사용된 번역 기법이 11.6%(24개)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음차’ 번역이 10.6%(22개)로 식생활 어휘를 기술하는데 사용되었다. ‘문화대체어’ 기법은 6.8%(14개)로 다소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혼합’ 번역 기법은 5.3%(10개)로 나타났고 ‘직역’이 2.9%(6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직역과 추가 정보’가 1.4%(3개) 비율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혼합 (추가 정보)’와 ‘사전식 설명’이 각 0.5%(1개)로 한국 고유문화 어

휘의 식생활 어휘를 번역하는데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 기법의 특징을 베누티의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과 연관시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자국화에 포함되는 번역 기법으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학습자에게 그대로 제시하기 보다는 학습자 모국어에 맞추어 제시하는 기법으로서 ‘직역, 문화대체어, 풀어서 설명하기, 사전식 설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국화 전략은 한국의 고유문화 어휘를 그대로 전달하여 학습자에게 외래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음차’ 기법이 여기에 해당되겠다. ‘혼합’의 경우에는 두 어근이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유동적인 기법이다.

본 연구의 번역 기법에 따라 교재에서 지향한 어휘 번역 전략을 보면 자국화 66.5% 이국화 33.5%로 식생활 어휘에는 학습자를 위해 자국화 전략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⁶⁾

제 5 절 식생활 요소의 번역 방식의 문제점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부설 기관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식생활 어휘의 번역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번역 기법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어휘 번역의 결과 어휘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어보았다. 교재에서 어휘 번역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 번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이 달랐다. 기관마다 동일한 어휘에 적용한 번역 기법이 다르며 일부 어휘는 같은 기관의 급별로도 다른 번역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에도 차이가 났다.

56) 이국화와 자국화의 중립적인 위치에 놓인 혼합 번역 기법은 제외하였다.

[표 4-1} 동일 어휘에 여러 번역 기법이 적용된 예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배우4	갈비	풀어서 설명하기	roasted ribs
서강2A	갈비	직역(추가 정보)	ribs(Korean food)
연세1	갈비	음차	galbi
한국1	갈비	직역	a rib

기관마다 식생활 어휘 ‘갈비’에 적용한 번역 기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4』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기’로 나타내고 있으며 『New 서강한국어 2A』에서는 직역과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연세 한국어 1』에서는 음차 번역 기법으로 그리고, 『한국어 1』에서는 직역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표 4-2} 동일 교재 내에서의 기법 차이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한국1	칼국수	음차(추가 정보)	Kalguksu(a noodle dish)
한국3	칼국수	풀어서 설명하기	a handmade knife-cut noodles

동일 기관에서 출판된 『한국어 1, 3』에서는 ‘칼국수’를 각각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한국어 1』에서는 음차와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3』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 4-3} 동일 교재 내에서의 기술 내용 차이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연세2	된장	풀어서 설명하기	soy paste
연세3	된장	풀어서 설명하기	bean paste

동일한 교재에서도 같은 어휘에 적용한 번역 기술 내용이 급에 따라 달

랐다. 『연세 한국어 2』와 『연세 한국어 3』에서 ‘된장’을 번역하기 위해 모두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번역된 설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일부 어휘 중 일부 기술 내용의 적절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풀어서 설명하기와 음차 번역의 로마자 표기에서 나타났다.

[표 4-4] 번역 기법 내용의 적절성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3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thick soy-paste mixed with red pepper
한국3	칼국수	풀어서 설명하기	a handmade knife-cut noodles

예를 들어,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 ‘고추장’을 ‘thick soy-paste mixed with red pepper’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풀어서 설명하기 번역 기술은 문제점을 낳는다. ‘고추장’을 잘 모르는 학습자는 위의 번역 기술만을 읽으면 ‘고추장’은 ‘된장’과 ‘고추’를 섞은 걸쭉한 조미료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3』에서는 ‘칼국수’에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을 사용하여 번역을 기술을 하였는데 손으로 만든 칼로 썬 국수라고 하였다. 칼국수의 국수는 칼로 썰어 만든 국수가 맞지만 이는 ‘칼국수’ 어휘의 두 어근에 대한 설명적 나열일 뿐이다.

[표 4-5] 로마자 표기의 오류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서강1B	갈비	음차(추가 정보)	Kalbi - Korean barbecue ribs
연세1	갈비	음차	galbi
서강1A	김밥	음차(추가 정보)	Gimbap - rice rolled in laver with vegetables and meat
서강3A	김밥	음차(추가 정보)	Kimbap(rice rolled in dried seaweed)

연세1	김밥	음차	Kimbab
연세3	떡볶이	음차	5과 본문 tteokbokki 9과 예문 ddukbokki
한국2	떡볶이	음차(추가 정보)	tteokbokki
연세2	설렁탕	음차(추가 정보)	Sulreongtang(beef and rice soup)
한국3	설렁탕	음차(추가 정보)	Seolleongtang; a kind of beef soup with rice

음차 번역 기법이 적용된 어휘의 로마자 표기상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로마자 표기의 상이성은 각 교재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교재내에서도 나타났다. 『연세 한국어 2』와 『한국어 3』에서 기술한 ‘설렁탕’의 로마자 표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 기관 교내 내에서의 차이로는 『New 서강한국어 1A』와 『New 서강한국어 3A』에서 모두 ‘김밥’을 음차 기법을 사용하여 번역을 기술하였는데 두 교재에서 제시한 로마자 표기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번역 전문가인 번역사에 의해 교재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동일 기관에서 발간된 교재의 급별로도 번역자의 차이가 있다.

[표 4-6] 교재의 번역사(번역자)

교재	번역사(번역자)	
A기관 교재 1A	영어 번역	Ju You-kyung (M.Sc.in Applied Linguistics, University of Edinburgh) Resercher, KLEC, Sogang University Patricia L. Mitchell(B.Sc. in Computer Science and Astronomy, University if Toronto) Resercher, FLEC, Sogang University
	번역 감수	English proofreading Hur Goo Saing (Ph.D.in History, University of Minnesota) Managing Directo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ulture & Education, Sogang University Yoo Isaiah WonHo (Ph.D.in Applied Linguistics, UCLA)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and Linguistics, Sogang University
A기관 교재 2A	영어 번역	주유경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연구원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응용언어학 석사 Duane Henning 연세대학교 교양영어 전임강사 / 호주 Macquarie University 응용언어학 석사 Doninic Hanlon 전 인천대학교 교양영어 전임 강사 / 호주 Macquarie University 물리학 석 사
	번역 감수	허구생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 원장 /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역사학 박사
A기관 교재 2B	영어 번역	주유경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연구원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응용언어학 석사 Duane Henning 연세대학교 교양영어 전임강사 / 호주 Macquarie University 응용언어학 석사 Doninic Hanlon 전 인천대학교 교양영어 전임 강사 / 호주 Macquarie University 물리학 석 사
	번역 감수	허구생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 원장 /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역사학 박사 Yoo Isaiah WonHo 서강대학교 영미어문학 교 수 미국 UCLA 응용언어학 박사
A기관 교재 3A	영어 번역	주유경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연구원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응용언어학 석사 Duane Henning 연세대학교 교양영어 전임강사 / 호주 Macquarie University 응용언어학 석사 Doninic Hanlon 전 인천대학교 교양영어 전임 강사 / 호주 Macquarie University 물리학 석 사
	번역 감수	허구생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 원장 /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역사학 박사 Yoo Isaiah WonHo 서강대학교 영미어문학 교 수 미국 UCLA 응용언어학 박사
A기관 교재 3B	영어 번역	주유경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연구원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응용언어학 석사 Duane Henning 연세대학교 교양영어 전임강사 / 호주 Macquarie University 응용언어학 석사
	번역 감수	허구생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 원장 /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역사학 박사 Yoo Isaiah WonHo 서강대학교 영미어문학 교 수 미국 UCLA 응용언어학 박사

A기관 교재 4A	영어 번역	인덱스 번역 - 이춘희, 남애리(한국어 교육원 연구원) 영문 번역 - Judith Mitchell, Joshua Min, Mark Ranson, Duane Henning, Keith Molchany
A기관 교재 4B ⁵⁷⁾	영어 번역	Judith Mitchell, Joshua Min, Mark Ranson, Duane Henning, Keith Molchany
B기관 교재 1	영어 번역	김소연(전 언어교육원 강사)
	번역 감수	강태경(언어교육원 원장,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B기관 교재 2	영어 번역	연남경(언어교육원 강사)
	번역 감수	강태경(언어교육원 원장,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B기관 교재 3	영어 번역	김소연(전 언어교육원 강사)
	번역 감수	강태경(언어교육원 원장,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B기관 교재 4	영어 번역	우혜령(전 언어교육원 강사)
	번역 감수	강태경(언어교육원 원장,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교재 분석 대상 중 일부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의 서지 사항을 보면 교재를 번역한 번역자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번역을 담당한 담당자의 이름과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번역자의 정보가 확인 가능한 교재를 살펴 본 결과 한국어 교재의 번역은 일정한 훈련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업으로서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번역사’⁵⁸⁾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재 번역은 한국어 교사가 담당하여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드러난 번역의 문제점의 원인이 번역사에 대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영어 능통자라 하더라도 어느 번역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57) 감사의 글에서 영어 번역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58) 정호정(2008:p.192)에서는 ‘번역사’란 일정한 훈련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업으로서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번역자’는 특별한 훈련이나 직업과 관련된 특성 없이 번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번역자와 전문 번역사의 번역 작업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A기관의 경우 번역의 과정에 원어민이 참여하였더라도 전문 번역사의 작업과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며 한국어에 능통한 원어민이어야 정확한 번역물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B의 경우 번역 감수는 전문 번역사는 아니더라도 영어 전공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A기관은 영어의 감수를 영어와 관련 없는 비영어전공자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한국어 교재의 번역에 관한 연구 과제가 남아 있을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단어 차원을 중심으로 현재 부설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번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학습 도구로서 교재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교재 분석에서 도출된 식생활 어휘와 관련된 번역의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겠다.



제 4 장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전략

제 1 절 식생활 어휘 번역 방식의 해결 방안

본 연구에서는 다섯 대학 부설 기관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식생활 어휘에 적용된 영어 번역 기법을 분석하였다. 교재 분석을 통해 식생활 어휘에서 나타난 번역 기법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에 대한 문제점 중 두드러지는 세 가지 현상을 지적하였다. 3장 4절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동일한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이 달랐다. 기관마다 동일한 어휘에 적용한 번역 기법이 다르며 일부 어휘는 같은 기관의 급별로도 다른 번역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에도 차이가 났다.
- 2) 일부 어휘 중 일부 기술 내용의 적절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풀어서 설명하기와 음차 번역의 로마자 표기에서 나타났다.
- 3) 번역 전문가인 번역사에 의해 교재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동일 기관에서 발간된 교재의 급별로도 번역자의 차이가 있다.

식생활 어휘 분석 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풀어가도록 하겠다. 여기서 미시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3장에서 분석한 한국 고유문화 어휘 중 식생활 어휘와 관련된 문제점만을 의미한다. 거시적인 측면이란, 식생활 어휘의 번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을 일컫는다. 마지막의 번역가와 연관된 문제는 2절에서 해결 방안

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1. 번역 기법과 전략의 정립

식생활 어휘의 번역 실태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점은 동일한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관마다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의 급별로도 같은 어휘에 적용한 번역 기법이 달랐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1』에서 ‘냉면’에 적용한 기법은 풀어서 설명하기를 사용하여 ‘cold noodle dish’로 나타냈고 『NEW 서강한국어 2A』에서는 음차 기법을 통해 ‘naengmyeon’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문화에 낯선 학습자가 같은 어휘에 다른 번역 기법의 기술 내용을 접했을 때 학습자는 두 번역 설명이 같은 음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동일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교재 번역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기관마다 나름대로의 번역 전략을 세워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 출판 기관이 모여 번역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교재 번역 규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또한 동일 기관의 교재 급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서강대학교 『NEW 서강한국어 1A』에서는 ‘갈비’를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을 통해 ‘Korean style barbecue ribs’로 제시하고 『NEW 서강한국어 2A』에서는 직역과 추가 정보 기법을 적용하여 ‘ribs (Korean food)’로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문화에 낯선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각기 다른 기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동일한 어휘에 각 기관이 다른 번역 기법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일관된 번역 기법 사용을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⁵⁹⁾

동일 어휘에 대한 번역 기법의 차이는 같은 기관 내에서도 나타났다. 3장의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말이 트이는 한국어 2』와 『말이 트이

59)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는 한국어 3』에서 ‘잡채’ 번역 기법은 모두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이었지만 번역 기술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2』에서는 ‘mixed dish of vegetables and beef’로 기술하였고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는 ‘a mixed dish with vegetables beef and clear noodles’로 기술하였다.

한국어 교재의 번역은 주로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학습자를 위한 초급·중급 교재에서 많이 나타난다. 교재의 번역은 학습자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초급·중급 학습자는 교재에 제공된 모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여과 없이 흡수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면 교재의 번역 작업에는 체계적인 전략적 작업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의 번역사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의 가치를 변용시키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장에서 제시하였듯이 번역 작업은 공식이나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 요소인 식생활 어휘에 대한 일괄적인 번역의 전략과 기법이 요구된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내용과 번역 형식의 기법은 교수·학습의 성공 여부를 가릴 것이기 때문에 번역 기법의 선정이 중요하다. 곧 식생활 어휘의 번역 기법과 번역 전략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의도와 목적 달성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음식 중 ‘갈비’를 직역할 때 ‘ribs’라고 한다면 학습자는 한국의 ‘갈비’와는 다른 모국의 음식을 상상할 수 있으며 혹은 정말 갈비 뼈 모양을 생각할 수 있다. 문화대체어를 사용하여 전병을 ‘pancake’로 번역 한다면 학습자에게 유사한 음식을 떠올리게 할 수는 있지만 역시 한국의 고유한 음식을 알려주지 못한다. ‘식혜’를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을 사용하면 ‘sweet drink made from fermented rice’라고 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안에서는 텍스트 길이

를 길게 만들며 의사소통 발화시에는 용이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혼합’ 기법은 이 기법의 안에서도 어떤 번역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번역 결과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한국어 교재 번역에 사용된 번역 기법 분석 결과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앞에서 제시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풀어서 설명하기’는 분명 식생활 어휘가 가진 특징적인 요소를 설명해줌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번역 기법이다. 그러나 문장 더 나아가 텍스트 안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유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풀어서 설명하기’의 장점에 비하여 단점이 지닌 측면이 의사소통에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는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되는 요소로서 유용한 형태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학습자에게 사용하기 불편한 어휘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번역된 식생활 어휘가 간결성을 지녀 의사소통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번역 기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스코포스 이론에서는 번역 전략을 계획할 때 중요시해야 할 점은 번역의 목적과 수용자라고 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어있다.⁶⁰⁾ 교육의 목적에 충실하고 학습자의 학습에 용이한 번역 방법으로는 ‘음차’와 함께 ‘추가 정보’를 사용하는 번역 기법이 가장 적합하다.⁶¹⁾ 본 연구에서 ‘음차와 추가 정보’의 번역 기법의 사용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음차’ 번역 기법의 장점은 첫째 ‘음차와 추가 정보’는 주로 도착어 어휘 목록에서 한국어의 식생활 어휘와 등가를 이루는 어휘를 찾기 힘들거나 사용하기 어색할 경우에 유용하다. 강현화(2002: 406)에서 문화 어휘 선정에 있어 고려한 사항중 하나는 다른 나라에는 대당 표현이나 대당 지시물을 찾기 어려운 우리 문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

60) 박영순(2003)에서는 한국어 교재 개발 원리에서 한국어 교재가 갖추어야할 요건 중 하나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에 의거한 교재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61) 김정우(2008)에서는 로마자 표기는 일반적인 번역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표기법도 일정한 의도를 갖는 목표지향적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비판과 평가에는 구체적인 독자층 내지 사용자 층 등 실제적인 사용 현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로마자 표기법은 실용지향적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출발어와 도착어 간에 완벽한 일대일 대응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단순히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대응어를 찾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 보다 그 어휘가 상징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을 찾아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더불어 식생활 어휘의 경우에 유사한 어휘로 대체 번역하는 자국화는 오히려 학습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⁶²⁾ 그러므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의 목적과 대상자인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목적을 고려하여 ‘음차’와 ‘추가 정보’를 사용하는 이국화 전략 방향을 모색하여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번역은 언어나 문자의 전환뿐만 아니라 문화의 전환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번역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외래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음차’ 번역은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변용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그대로 제시할 수 있어 어휘 자체의 고유성을 유지한다. 국립국어원(2000)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한국어로 불릴 가치를 가진 어휘라고 하였다.⁶³⁾ ‘음차’로 번역하는 방법은 학습자가 영어로 의사소통할 때도 한국어로 전달하게 한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음차’ 번역 기법은 로마자 표기이다.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 발음과 유사하게 발음하도록 표기한 문어 형태로 외국인이 표기를 읽을 때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게 된다. 이는 곧, 어휘 음성의 고유성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식생활 어휘가 한국의 문화에 해당하는 어휘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점을 취한다. 음차 기법을 통한 식생활 어휘의 번역은 모든 어휘에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외에서도 외국인이 어휘 표기의 발화를 통해 한국의 문화 요소임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김재희(2010)에서는 아랍어 텍스트 내에서 한국어 문화관련 어휘가 대체

62) 성초림(2009)에서는 과도한 자국화 전략은 독자가 도착어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내었다고 하였다.

63) 국립국어원(2000)에서 제시한 ‘한국 문화 기초 용어’와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유사한 어휘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로 문화대체어로 번역된 것을 보고 이러한 실태가 나타난 이유를 번역사가 ‘음차’ 번역을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 용이성에 있어 독자에게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로 문화대체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번역 방식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아랍인 독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번역된 텍스트의 문화대체어를 통해 음식의 의미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한국 음식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음차 번역 기법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호기심 많은 한국어 학습자 또한, 고유한 한국의 문화 요소를 학습하길 원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직역’이나 ‘문화대체어’ 기법을 사용하여 식생활 어휘를 나타내기보다는 이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내보이는 이국화 전략의 ‘음차와 추가 정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짐작된다.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번역 체제가 흔들리거나 자의적이 되면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번역하는데 큰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음차’와 ‘추가 정보’ 번역 기법은 한국 문화의 특징적이며 고유한 요소를 유지하며 간결한 형태로서 의사소통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음차’ 번역 기법과 함께 사용되는 ‘추가 설명’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 요소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학습자에게 어휘 학습의 이해를 돕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이로써 ‘음차’와 ‘추가 정보’ 번역 기법은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2. 번역 기술 내용의 정확성

교재 분석 결과에서 두 번째로 나타난 문제점은 식생활 어휘에 적용된 번역 기법의 기술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어 교재의 번역 기술 내용은 학습자가 식생활 어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으로 작용하도록 제공한 것이지만 실제로 교재의 어휘 번역 기술 내용에 오류가 있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섯 가

지의 번역 기법 중 번역 기법의 기술 내용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은 풀어
서 설명하기 기법과 음차 기법의 로마자 표기이다. 예를 들어, 『말이 트
이는 한국어 3』에서는 ‘고추장’을 ‘겉쫀한 된장과 고추를 혼합한 것(thick
soy-paste mixed with red pepper)이라고 제시하여 ‘고추장’의 재료를 정
확하게 기술하지 않았고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는 ‘흰떡’을 겉쫀한
떡(white, bar-shaped rice cake)이라고 기술하였지만 ‘흰떡’의 모양
을 반드시 ‘bar-shaped’로 정형화 할 수 없다.

음차 번역 기법은 로마자 표기법에 의거하여 로마자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표기하는 것이다.⁶⁴⁾ 『연세한국어 3』에서는 식생활 어휘 ‘떡볶이’
를 두 번 제시하였는데 5과 본문과 9과 예문에서 각기 다른 로마자를 사
용하여 ‘떡볶이’의 첫 자음을 표기하였다. 5과 본문에서는 ‘떡볶기’를
‘tteokbokki’로 표기하였으며 9과 예문에서는 ‘ddukbokki’로 표기하여 학습
자에게 정확한 로마자 표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로마자 표
기의 오류는 어휘의 번역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였다면
나타나지 않을 법한 요소이다. 로마자 표기 중에는 두 개 이상의 표기가
허용되는 예외도 존재한다. 한국의 문화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김치’의 로
마자 표기 ‘Kimchi’와 ‘Gimchi’는 모두 통용이 허용되었다. 하나의 식생활
어휘에 로마자 표기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 현상은 그동안 로마자 표기법
이 여러 번 바뀐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한 어휘
에 대한 두 가지 표기를 허용한 이유는 통용되던 두 가지의 로마자 표기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다면 이는 정보 검색상의 불편과 로마자 표기 수정
작업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정보화 사회의 국가 경쟁력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하나의 어휘에 두 가지 로마자 표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
재에서는 가능하다면 현행 표기법에 따라 하나의 표기만을 선택하여 학습
자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휘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적절하
다.

국가적으로 고시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시한 식

64) 현재 로마자 표기법은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의거한 것에 따르고 있다.

생활 어휘 표기상의 오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요소이다. ‘음차’ 기법의 로마자 표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말 배움터’⁶⁵⁾에서 표기를 참고할 수 있다. ‘우리말 배움터’에서 제공하는 ‘로마자 변환기’는 빠르고 정확하게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로마자 표기를 제공한다. ‘로마자 변환기’는 인명, 고유명사, 행정구역, 일반, 학술응용에 관한 표기의 변환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로마자 표기를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아직은 기관마다 식생활 어휘의 번역 기법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 기술 내용의 오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 교재 내에서까지 나타나는 번역 기법의 기술 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재 집필진의 기관 차원 혹은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학습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재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학습하게 하는 도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한 후 나아가 자국, 더 넓게는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번역 기술 내용의 정확성과 기법을 통일하는 작업은 국가적인 차원과도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알기 쉬운 한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식메뉴 외국어 표준 표기안을 마련하였다.⁶⁶⁾ 이는 외국인이 한식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의 사진, 음식명칭, 주재료, 조리법, 곁들여먹는 국이나 양념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국어 교재에서 ‘음차’와 ‘추가 정보’ 기법을 사용하여 식생활 어휘를 기술할 때 ‘추가 정보’에는 국가적으로 마련한 통일된 음식의 표기안을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식생활 어휘의 ‘추가 정보’에 기재해야 할 필수적인 기본 정보는 음식의 특징인 재료, 조리법, 맛일 것이다. 이로서 학습자는 어휘가 의미하는 음식이

65) http://urimal.cs.pusan.ac.kr/urimal_new/

66)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2009. 11. 6일에 발표하였다. 국가에서 공표한 이 표기안도 한국의 고유한 음식명을 알리려고 하기 보다는 외국인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번역하였다.

67) ‘알기 쉬운 한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식메뉴 외국어 표준 표기안은 모든 한국 음식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에게 식생활 어휘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번역 기술 내용은 한국 음식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음식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재는 한번 출판되면 최소한 몇 년 이상 동안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실로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안주호, 2009:49-50). 이처럼 교재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재수정이 쉽지 않고 수정을 거쳐 다시 출간하더라도 부정확하게 번역된 용어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어 교재의 번역은 아직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교재의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교재 제작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전략에 대한 제언

1. 번역사의 자질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어휘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에서부터 미시적인 측면으로 풀어갈 것을 언급하였다. 본 항에서는 거시적 측면에 해당하는 ‘번역사’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높은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신선영(2002)에서는 번역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접 그 번역 행위를 하는 번역사라고 하였다. 번역사의 위치가 중요한 요소임에 반해 일부 기관의 교재 번역은 번역에 대한 학문을 쌓은 전문 번역사가 아닌 번역가에 의해 번역이 작업 되었다.⁶⁸⁾ 번역 작업의 주체는 번역사이다. 전문 번역사는 번역 작업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68)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다섯 기관의 한국어 교재 중 세 곳에서만 교재의 번역자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재가 비번역전문가에게 번역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특정 분야의 번역이든지 적합한 번역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번역사는 한국어 교재의 번역 목적을 고려하여 세운 번역 전략을 토대로 진행함으로써 이상적인 번역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적절한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번역 과정을 수립할 것이라고 본다.

출발텍스트를 도착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에서 번역사가 이상적인 최상의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위치에서 작업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교재의 번역이 한국어 교육의 목표·목적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번역사가 번역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한국어 교육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 한국어 교재의 번역 과정에는 번역사와 의뢰자와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번역사의 개인 적인 ‘선언적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⁶⁹⁾ ‘선언적 지식’은 번역사가 축적한 포괄적인 지식 기반으로 ‘언어적 지식’⁷⁰⁾과 ‘언어 외적 지식’이 이에 해당된다. 번역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번역할 언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이미 갖고 있으리라 간주된다. ‘언어 외적 지식’에는 한국어 교육계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과 번역할 출발텍스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지식, 출발권 문화와 도착권 문화의 지식 그리고 두 문화권을 대상으로 이문화간의 중개 전략 지식 등이 포함된다.⁷¹⁾

사실 지금까지 교재 번역은 기관 내에서 언어에 능통한 자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에 번역사가 한국어 교육계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갖추고 있을 확

69) Wilss(1998)는 Ryle(1949)을 인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할 두 가지 유형의 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첫 번째 지식은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으로, 인간이 기억 속에 축적해놓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리킨다. 두 번째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은 인간이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말하며 ‘전략적 지식(strategic knowledge)’이라고도 한다.(정호정a 2008:pp.157-158)

70) 정호정a(2008:p.47)에서는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은 통역·번역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의 양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에 대한 지식을 총칭한다. 이것은 단순히 두 가지 언어에 대한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즉, 출발어와 도착어의 구사력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말한다.

71) 출발권 문화와 도착권 문화의 지식 그리고 두 문화권을 대상으로 이문화간의 중개 전략 지식은 ‘문화능력’의 이론과 연관성을 지닌다. 장애리(2010)에서는 ‘문화 능력’이란 언어적, 기능적, 내용적으로 충실한 번역을 위해 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 지식과 이해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률이 낮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계의 의뢰자는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번역사에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한국어 교육의 이념, 목적, 목표 등 한국어 교육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을 포괄하며 한국어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반드시 번역사가 알아야 할 사항이다. 번역사가 한국어 교육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교재가 번역 작업을 거친 후에도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는 교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어 교육계의 정보 제공은 번역사가 ‘언어외적 지식’을 활용하여 교재의 번역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번역사에게 요구되는 ‘주제 지식’은 번역의 대상인 텍스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리킨다.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는 텍스트 주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번역사가 여러방면의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⁷²⁾

번역사는 두 문화의 중개자이다. 번역사가 문화의 중개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출발권과 도착권 문화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번역사에게 번역이 단순한 언어 기호의 전환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고유한 정신 및 세계관을 전달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김효중, 2001:18). 출발권 문화와 도착권 문화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생태환경에 속하는 기후, 자연환경, 지리 등 인간을 둘러싼 것부터 시작하여 행위 규범과 정신적 실재와 관련한 세계관인 종교, 제도, 역사에 대한 모든 문화를 섭렵해야 한다. 동일한 언어문화 집단에 속한 언어 사용자에게는 모국 언어와 문화가 체계화·구조화 된 지식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타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언어와 문화는 낯선 요소일 뿐이다. 번역사는 학습자가 다른 문화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타문화의 특수성을 배우고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번역사가 자국뿐만 아니라 도착어권의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두 문화권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번역사는 언어 측면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의 상대성에 대하여 번역의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할

72) 송수희(2009)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텍스트 주제를 ‘일상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문화, 사회, 경제/경영, 과학, 교육, 역사, 기타’ 10개의 대 주제로 나누었다.

것이다.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 번역사는 학습자의 자국의 문화의 세계관에 비추어 이국의 세계관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게하고 번역을 통해 학습자에게 두 문화 간에 상대성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국가 차원의 협조

번역사는 번역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번역사에게 문화가 포함된 번역은 통상적인 언어 번역의 결정 과정보다 더 힘들기 마련이다. 번역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시 출발어를 강조할 경우 도착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도착어를 강조할 경우 출발어가 훼손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역의 문제를 과연 교재를 번역사 자체에서 풀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발간한 기관과 국가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은 6개 정부 부처와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관할 아래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⁷³⁾ 국가의 관할 아래 한국어 교육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한국어 교재의 번역에 대한 규정은 국가에서 규정 및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 번역에 대한 준수 사항이 존재한다면 번역사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번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휘에 대한 일정한 번역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번역사는 동일한 어휘 번역에 관하여 합의된 원칙에 따라 번역할 것이고 도착텍스트에 나타난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번역은 통일성을 갖출 것이다. 일관된 어휘 번역은 이전과 달리 학습자에게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대한 지침이 제시된다고 할 때 번역된 어휘의 기술 내용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문장에서 나아가 텍스트 차원의 번역은 일관된 틀을 정해놓고

73) 현재 한국어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 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이다.

번역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대한 번역은 동일한 기술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번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교재 출판 기관과 번역사가 수월하게 번역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번역사가 가장 고민해야 할 번역 목적과 수용자에 대한 고민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번역 작업과 번역 결과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으로 번역 작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 1) 번역사가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2)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의 사용은 번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를 방지할 것이다.
- 3)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번역은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번역의 표준화를 도래할 것이다.
- 4) 번역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
- 5) 번역사의 주관이 개입되었던 번역 기술 내용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위의 다섯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긍정적인 측면은 더 다양할 것이다. 현재 사회·문화가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어 가는 것과 관련지어 보면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에 관한 번역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어 교육계에서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앞서고 있는 지금 한국어의 해외 보급 프로젝트의 번역 자료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학 번역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3. 번역 이론의 선택

한국 고유문화 어휘 교육은 학습자가 문화 학습에 대한 의욕을 충족시켜 주고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전미순·이병운, 2009:120).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에 중요한 만큼 교재에서 어휘 번역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2장에서 스코포스 이론과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언급하였다. 본 항에서는 스코포스 이론과 이국화 전략 이론을 토대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양질의 번역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번역 작업 방향과 두 이론을 통한 번역 결과물의 영향력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⁷⁴⁾

스코포스 이론은 각각의 출발·도착텍스트가 주어진 특정 목적을 위해 생산되며 그 목적에 도움이 되고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번역한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의 용이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번역이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역에서 벗어나 한국 고유문화 어휘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자에게 올바른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데 의의를 둔다. 3장 식생활 어휘의 번역 기법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대부분 교재의 어휘 번역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교재의 번역 기법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 어휘 번역을 학습자 문화에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코포스 이론의 번역에서는 동일한 출발텍스트라 할지라도 도착텍스트의 의도된 수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번역 전략이 다르다. 한국어 교재의 번역에 스코포스 이론을 적용하면 번역이 목표로한 수용자는 한국어 학습자이다. 한국어 교육계의 학습자는 표면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과는 별개 존재라고 여겨진다. 학습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 문화 학습에 능동적이기에 번역의 일부분인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대한 번

74) 번역사가 스코포스 이론을 통해 번역 전략 수립을 할 때 번역 목적과 관련한 번역 행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다.

역이 이국화 전략이어도 이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번역된 교재는 이미 학습자를 충분히 배려한 친절한 교재이다. 텍스트 안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이국화 전략으로 제시된다고 해서 학습자의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아닐 것이다.

박영순(2003)에서 제시한 한국 문화 교육의 목표 중 일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목표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대략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2)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3)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비교, 대조할 수 있다.

한국 문화 교육의 목표가 위와 같다는 사항을 고려하면 이국화 전략은 더욱 적용되는 방향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비교 언어문화차원에서 볼 때 이국화 전략은 학습자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상대성을 번역 언어를 통해 더욱 실감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은 스코포스 이론과 이국화 전략을 통해 번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호정(2009)에서는 스코포스 이론의 학문적 기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번역된 텍스트가 기능하게 될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내에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 혹은 목적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실제 번역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다.”(정호정, 2009:185-186)

기능주의의 스코포스 이론은 번역 결과물인 도착텍스트가 생성되는 목적과 그것을 사용하는 수용자에게 알맞게 기능하도록 번역하는 것이 원칙

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를 번역한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의 용이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의 용이성과 더불어 학습자가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번역으로 인해 추후에 미칠 영향력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학습자는 한국 문화를 배우는 존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 한국 문화를 자국에 전달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영어권 학습자가 모국에 한국 문화를 전할 경우, 학습자는 무의식적으로 교재에서 본 한국 문화의 영어 번역을 사용하여 모국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할 것이다. 곧, 해외에 고유한 한국 문화를 보존하여 전달할 수 있을지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작업에서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 중 어느 전략을 선택하여 한국 문화를 번역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번역사는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의 선택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결과가 미치는 상황적, 문화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전략 중 문화 교육에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야 바람직한 번역물을 생성하여 성공적인 문화 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은 사회문화적 파급력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연관 된다. 학습자는 높은 수용력을 지녔기 때문에 대부분 번역에 대한 비판적 판단 없이 교재에 제시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이 자국화 전략의 번역 기법을 사용한다면 어휘는 각국의 문화에 맞춘 그 형태로 전달될 것이며 이국화 전략의 번역 기법이 사용된 어휘라면 한국의 고유한 문화 어휘의 특징을 유지한 형태로 전파될 것이다. 번역은 국가 홍보와 좋은 문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작용하여 한국 문화를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의 번역은 국가의 인식도 곧, 국가 경쟁력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문화 중 한국어로 발음대로 부르고 있는 것은 태권도, 김치, 불고기, 갈비 정도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번역 용어의 선택에는 주로 이국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자국의 문화재를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하여 세계적인 공용어로 인정받고 있

는 문화재가 많다. ‘Samurai, Geisha, Sumo, Natto, Gingko’ 등 여러 문화재를 자국의 발음대로 전파하고 있다(한영우, 2005:40).

현재 국가 간에 상호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각국은 자기 나라의 특유한 문화를 확장하고 자국의 위신을 고양하는데 힘쓰고 있다. 과거 한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였고 한국의 이미지는 중국 또는 일본의 주변 문화 민족으로 과소평가 되어 있어 국익과 관련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대외교유 협력에도 미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민봉순, 2003:24). 번역은 개인의 풍부하고 질적인 삶의 향상과 해외에서 그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동시에 자국민의 경제 활동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재의 번역 작업은 번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후에 문화 전달에 있어 한국 문화의 번역 형태로 인해 나타날 영향력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화 영역에 초점을 두어 영어권별·영어판과 한국어판 한국어 교재 내에 제시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 중 식생활 어휘에 사용된 번역 기법을 분석하였다. 현재 교재에서는 11가지의 번역 기법을 사용하여 식생활 어휘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 기법은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되지 않은 번역 기법은 여러 문제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어휘의 번역 분석 결과,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교재마다 동일한 식생활 어휘에 사용된 번역 기법이 달랐다. 동일한 식생활 어휘에 적용한 번역 기법은 동일 기관의 급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식생활 어휘의 번역을 통해 기술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다. 특히 풀어서 설명하기 기법과 부연 설명인 추가 정보에서 나타난 번역 내용이 부적절하였으며 음차 번역 기법을 적용한 몇몇의 식생활 어휘에서는 로마자 표기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는 한국어 교재의 번역은 전문 번역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출발어는 반드시 어떤 도착어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고정적인 번역 규칙을 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번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사는 번역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번역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번역물을 생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코프스 이론과 이국화 전략에 입각하여 한국어 교재의 번역 목적과 수용자를 고려한 ‘음차와 추가 설명’ 번역 기법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의사소통 시 어휘가 간결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한국의 고유한 문화 요소의 특징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어휘를 한 가지의 기법으로 통일한 번역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동일한 어휘 번역을 통해 지금까지 교재에서 다양한 번역 기법으로 학습자에게 일으킨 혼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비전문가에 의한 교재 번역과 규정된 번역 전략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번역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교재 번역은 한국어 교육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번역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번역사와 의뢰자 간에 사전 논의를 통해 번역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한국어 교재의 번역에 대한 번역 규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진행하는 방향을 모색을 지향한다. 국가에서 어떠한 규정을 제시한다면 번역에서 나타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하나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학습자는 목표 언어의 나라와 문화에 익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 요소와 관련된 어떤 상업의 행위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은 단순히 문화와 문화 간의 만남이 아니라, 다른 생산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경제, 사회, 정치적 사항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한국 고유문화 어휘와 관련한 한국어 교재의 번역 전략이 한국의 세계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 문화가 얼마나 알려질 수 있을지는 한국어 교재 속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어떤 번역 전략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고유한 문화 요소를 지칭하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는 이국화 전략을 사용하여 어휘가 지닌 문화 정보를 투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한국 고유문화 어휘가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이어지는 번역 과정에서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번역 전략과 관련하여 번역시 출발어를 강조할 경우 도착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도착어를 강조할 경우 출발어가 훼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Guidere(2001)는 “학자들 간에 이 두 개념에 대한 논쟁은 이 지구상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느 한 전략이 우세하거나 지속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김재희, 2010:21).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본 결과, 향후 한국어 교재 내에서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대한 번역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1) 한국어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은 어휘가 지닌 고유성을 유지해야 한

다.

- (2) 동일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은 일괄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3) 한국어 교재의 번역은 번역에 능통한 전문 번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4) 번역을 작업하기 전에 번역의 목적과 관련한 도착텍스트의 의도된 기능, 도착텍스트를 사용할 학습자를 고려하여 번역브리프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 (5) 국가적인 차원에서 번역에 대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6)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취한 번역 전략이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교재의 번역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고 학습 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문화 측면에서 번역은 모국어 설명을 통해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낯선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최소화시키는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번역 교재는 학습자에게 학습의 능률을 높여 주고 번역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적응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번역의 수준은 아직 정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듯하다. 한국어 교재에서의 번역 오류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적 오류, 부적절한 번역 어휘 선택, 화용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문화 어휘에 한정하여 각 교재에서 나타난 번역 실태를 살펴보았지만 어휘 차원에서 벗어나 문장 그리고 더 나아가 텍스트 차원에서의 번역의 질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재는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러한 교재 번역의 미흡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재를 구성하는 큰 테두리부터 개선해야 할 요소를 찾아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과 번역 전략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교재 분석 대상을 통합형 교재에 한정하여 문화 교육용 교재에서 나타난 어휘 번역의 현황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어휘에 적용할 번역 기법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요구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영어 번역을 비롯해 좀 더 다양한 언어의 교재 번역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서 본 연구에서 보다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번역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한국어교재 속의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접근과 평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기법 분석은 교재에 나타난 번역 전략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향후 여러 가지 번역의 방법 중에 번역사가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에 가장 적합한 번역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의의를 두고 본 연구의 미숙함을 마감하려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현화(2002), 「한국어 문화 어휘의 선정과 기술에 대한 연구」, 『박영순 편, 21세기 한국어교육학회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고창수(1999), 「한국문학 번역과 세계문단 진출」, 『번역문학』 2, 연세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연구원(2000), 『한국 문화 기초 용어』,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2008),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 권미경(2010), 「스코포스 이론으로 본 영한 동화 번역 기법의 사례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권남(2003), 「영한 번역 오류 분석 :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훈(2006), 「문화소 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전략」, 『한국통역번역학회』 8,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 김미정(2003), 「프랑스어 교재를 통해 본 「번역」의 문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2009), 「한국어교육 교재의 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원보 외(2005),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공용화 실현방안」, 『언어교육연구』 2,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
- 김재선(2010), 「오역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번역전략」,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2010), 「한국어-아랍어 광고 텍스트 번역 분석에 관한 연구 : 문화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주(2009), 「소설 '돈키호테'로 살펴본 번역 전략에 따른 독자반

- 응」, 『통번역학연구』 13,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 김정우(2008),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연구』 9, 한국번역학회.
- 김진옥(2006), 「고전소설 영역본 내 문화고유어의 번역사례와 분석」, 숙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중(2001), 「문학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교문학』 27, 한국비
교문학회
- 노진서(2007), 「한-영 시에 활용된 문화소의 번역 전략」, 『이중언어
학』 35, 이중언어학회.
- 두산동아(2010), 프라임 영한.한영사전, 두산동아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
부.
- 민봉순(2003), 「한국 전통 무형문화의 해외홍보정책에 대한 일고찰」,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
구」,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7, 서
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선청어
문』 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박용수(1997), 『새 우리말 갈래 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영순(1989),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 - 한국어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
학』 23, 이중언어학회.
- 박정진(2010),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과제 : 국립국어원 개발 한
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6, 한국언어문화교육학

- 회.
- 박진임(2004),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 한국번역학회.
- 방성원(2000), 「통합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1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성초림(2009), 「한국문학의 스페인어번역」,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1, 한국통역번역학회.
- 송수희(2009),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선영(2000), 「번역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 사전』, 한국문화사.
- 신현숙(2004), 「어휘 정보와 문화 정보 : {옷/ 밥/ 집}」, 『한국언어문화학』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신현숙(2009), 한국어교육의 어제와 오늘 『한국어문학연구』 5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 심재기(2004), 「문화적 전이로서의 번역. 문학번역에 있어서의 「토속적인 표현」의 번역의 문제」, 『번역문학』 5, 연세대학교 출판부.
- 안주호(2009),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선호 특성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 안진숙(2010),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 연구 : 고급 교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행일(2003), 「특집 : 문학작품의 해석과 번역 ; 번역의 오류 분석 -한영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4, 한국언어문화학회.
- 오경은(2009), 「정보성 텍스트의 한-영 번역 전략 : 문화와 언어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미형(2007), 「한국아동문학의 외국어번역에 있어 자국화와 이국화」,

- 『동화와 번역』 13,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 이근희(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相關語)의 번역 전략」, 『번역학 연구』 4, 한국번역학회
- 이근희(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이다현(2004), 「문화요소적 어휘 대응번역 :한국 고유어휘와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2009), 「한·중·일 전통 주거공간의 창호 비교」, 세종.
- 이병혁(2001), 「언어 전쟁 : 한국어 대 영어」, 『인문언어』, 국제언어인문학회.
- 이석주·이주행 (2006), 『한국어학 개론』, 보고사.
- 이순애(2005), 「한국어 교재의 식생활 어휘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 이은숙(2009), 『번역의 이해』, 동인.
-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중철(2008), 「스코포스 이론과 대상독자의 차이에 따른 번역전략」,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07), 「초기 한국어 교재의 내용 분석 - 19세기 말 영어판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4,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혜승(2008), 「문화적 함축으로 야기되는 번역문제 고찰」,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0, 한국통역번역학회.
- 임지룡(1995),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장애리(2010), 「문화능력의 정의와 구성요소」,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2, 한국통역번역학회.
- 전미순, 이병운(2009), 「초급 단계 문화 어휘 선정과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6,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전윤정(2009), 「한·영 번역에 있어 문화고유표현의 비등가 해결 전략 :

- Kevin O'Rourke의 Ten Korean Short Stories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혜원(2003), 「번역의 수용성 연구 : 영어와 한국어간의 문법적 차이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일(2003), 「번역수업에 있어서 '번역브리프'의 역할」, 『통번역학 연구』 7,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 정호정(2007), 「동일한 언어로 말하기 : 번역학 연구를 위한 용어 통일의 시급성」,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 한국통역번역학회.
- 정호정(2008a), 『제대로 된 통역 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 정호정(2008b), 「번역된 문화텍스트의 정보성 증가와 로마자 표기 방식의 문제점」,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0, 한국통역번역학회.
- 정호정(2009), 「문화 번역 평가 및 감수 기준으로서의 스코포스 이론의 효용」,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1, 한국통역번역학회.
- 정해옥 외(1999) 『한국 전통음식 -이론·실제-』, 문지사.
-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 연구와 적용」, 『국어교육학연구』 9, 국어교육학회 발행일
- 조현용(1999),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고향논집』 25, 경희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영우(2005),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역사.
- 황지연(2007), 「『大長今』 문화단어의 고찰」, 『중국연구』 39,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황진숙(2010), 「한식당에서 인지된 한국문화가 한식당 이미지, 한국문화 이미지 및 한식당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은(2007), 「번역에 있어서의 문화특수어의 역할 및 부등성 극복전략」,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Baker, M(1992), 곽은주 역(2005), 『*In Other Words, London*(말바꾸기)』, 한국문화사.

Nord, C(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Venuti, L(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eledge.

Vermeer, H.J(1989), 안인경 외 역(2010),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in A. Chesterman (ed), Readings in Translation Theory. Helsinki*(일반 통번역 이론 기초 : 스포코스 이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OXFORD(2009), 『*OXFORD ADVANCED LEARNER S ENGLISH KOREAN DICTIONARY*(옥스퍼드 영한사전)』, 2009.

3. 참고 자료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1』, 건국대학교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2』, 건국대학교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한국어 3』, 건국대학교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한국어 4』, 건국대학교출판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NEW 서강한국어 1A: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NEW 서강한국어 1B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NEW 서강한국어 2A: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NEW 서강한국어 2B: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NEW 서강한국어 3A: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NEW 서강한국어 1B: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6) 『서강한국어 4A: StudentBook with Audio 영어판』,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6) 『서강한국어 4B: StudentBook with Audio 영어판』,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육원.

성균어학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성균어학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성균어학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성균어학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성균어학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말이 트이는 한국어 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말이 트이는 한국어 3』,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말이 트이는 한국어 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4),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단어집 - 영

어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4), 『말이 트이는 한국어 2, 단어집 - 영어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4), 『말이 트이는 한국어 3, 단어집 - 영어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4), 『말이 트이는 한국어 4, 단어집 - 영어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 1 -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 2 -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 3 -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출판부.

3. 참고 사이트

농림수산물 관련 보도자료 http://ch-atv.com/2009/Aboard/atv_boardV.asp?bcode=bodo&num=23&curNum=23&curRef=23&curStep=0&curLevel=0&keyfield=&keyword=&page=

우리말 배움터 http://urimal.cs.pusan.ac.kr/urimal_new/

doopedia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YBM. Allinall 통합사전 <http://www.ybmallinall.com/>

【부 록】

한국 고유문화 어휘 번역의 목록

교재	어휘	번역 기법	번역
말이2	가래떡	풀어서 설명하기	stick of rounded rice cake
배우4	갈비	풀어서 설명하기	roasted ribs
서강1A	갈비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style barbecue ribs
서강1B	갈비	음차(추가 정보)	Kalbi - Korean barbecue ribs
서강2A	갈비	직역(추가 정보)	ribs(Korean food)
연세1	갈비	음차	galbi
한국1	갈비	직역	a rib
한국3	갈비집	직역	a rib house
말이2	갈비찜	풀어서 설명하기	steamed short ribs
서강2A	갈비찜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beef rib stew(Korean food)
연세2	갈비찜	풀어서 설명하기	steamed beef rib
서강3B	갈비탕	혼합 (추가 정보)	Galbi soup, beef soup [Korean food]
한국1	갈비탕	음차(추가 정보)	galbi-tang(beef-rib soup)
말이3	감자전	사전적 설명	potato that is cut thin mixed with flour and grilled on a pan
서강3A	감자탕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spicy potato soup with pork bones [Korean food]
한국3	감자탕	풀어서 설명하기	a potato stew with pig backbone
말이3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thick soy-paste mixed with red pepper
배우2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hot pepper sauce
서강3B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red pepper paste
연세2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red pepper paste
한국3	고추장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hot pepper paste

말이3	국	문화대체어	suop
서강2A	국	문화대체어	soup
연세1	국	문화대체어	soup
서강1A	김밥	음차(추가 정보)	Gimbap - rice rolled in laver with vegetables and meat
서강2A	김밥	풀어서 설명하기	rice rolled in dried laver
서강2B	김밥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rice rolled in dried laver [Korean food]
서강3A	김밥	음차(추가 정보)	Kimbap(rice rolled in dried seaweed)
연세1	김밥	음차	Kimbab
연세2	김밥	음차	kimbab
연세3	김밥	음차	Kimbap
한국1	김밥	음차(추가 정보)	Kimbab(rice rolls)
말이1	김치	음차	Kim-chi
말이2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the Korean pickled vegetables
서강1A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 - Korean traditional spiced cabbage
서강1B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 - Korean traditonal spiced cabbage
서강3A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Korean food)
연세1	김치	음차	Kimchi
연세3	김치	음차	Kimchi
한국1	김치	음차(추가 정보)	Kimchi(Korean pickled vegetables)
서강1B	김치찌개	혼합	kimchi stew
연세2	김치찌개	혼합	Kimchi stew
한국1	김치찌개	음차(추가 정보)	Kimchi jjigae(a kind of stew)
한국2	김치찌개	음차(추가 정보)	Kimchi jjigae(a kind stew made with kimchi)
서강3B	나물	풀어서 설명하기	cooked and seasoned vegetables or uncooked vegetables

한국2	나물	풀어서 설명하기	wild greens
한국3	낙지볶음	풀어서 설명하기	panbroiled octopus seasoned with red
말이1	냉면	풀어서 설명하기	cold noodle dish
서강2A	냉면	음차	Naengmyeon
서강4A	냉면	직역(추가 정보)	Korean food, cold noodles
한국1	냉면	음차(추가 정보)	naengmyun(a cold noodle dish)
서강3B	닭 칼국수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chicken noodle soup [Korean food]
서강2B	닭갈비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spicy chicken dish [Korean food]
연세2	닭갈비	음차	Dakgalbi
한국3	닭갈비	풀어서 설명하기	broiled chicken ribs
서강3B	돌솥 비빔밥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mixed rice and vegetables in a hot stone pot [Korean food]
연세2	된장	풀어서 설명하기	soy paste
연세3	된장	풀어서 설명하기	bean paste
말이2	된장찌개	풀어서 설명하기	beanpaste pot stew
말이3	된장찌개	혼합	bean-past stew
배우1	된장찌개	풀어서 설명하기	bean paste pot stew
연세3	된장찌개	혼합	bean paste soup
서강2A	떡	풀어서 설명하기	rice cake
연세2	떡	풀어서 설명하기	rice cake
한국2	떡	음차(추가 정보)	tteok(rice cake)
말이3	떡	풀어서 설명하기	rice cakes
말이2	떡국	혼합	rice-cake soup
배우2	떡국	혼합	rice-cake soup
배우4	떡국	음차(추가 정보)	Tteokguk(rice cake soup)
한국1	떡국	음차(추가 정보)	ttukgguk(rice-cake soup)
한국2	떡국	음차	tteok-guk
말이3	떡볶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a dish of sliced rice cake , meat and spicy red sauce

서강3B	떡볶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spicy rice cake [Korean food]
서강4A	떡볶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korean food, rice cake with red pepper paste
연 세3	떡볶이	음차	5과 본문 tteokbokki 9과 예문 ddukbokki
한국2	떡볶이	음차(추가 정보)	tteokbokki(a spicy panfried dish of rice cakes with meat and vegetables)
서강3B	막걸리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rice wine
한국4	막걸리	음차(추가 정보)	Makgeolli, raw rice wine
말이2	막국수	음차(추가 정보)	Magguksu: type of Korean spicy noodle
말이3	매운탕	혼합	spicy chowder
서강3B	매운탕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spicy fish stew [Korean food]
서강4A	매운탕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korean food, fish soup with red pepper paste
말이2	멸치젓	풀어서 설명하기	salted anchovies
말이3	묵은 김치	풀어서 설명하기	heavily fermented kimchi
말이3	물냉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cold noodle mixed with fresh (as of food)
서강2A	물냉면	음차(추가 정보)	Mullaengmyeon(cold noodles)
서강2A	물냉면	음차	Mullaengmyeon
연 세1	물냉면	음차(추가 정보)	mulnaengmyeon(cold noodles)
말이3	미역국	혼합	seaweed soup
연 세1	미역국	혼합	a seaweed soup
한국2	미역국	음차(추가 정보)	miyeok-guk(seaweed soup)
서강2A	반찬	문화대체어	side dishes
연 세1	반찬	문화대체어	side dishes
연 세2	반찬	문화대체어	side dish
한국2	반찬	문화대체어	a side dish
한국4	반찬거리	풀어서 설명하기	materials for making side dishes
연 세1	밥	직역	rice

한국1	밥	직역(추가 정보)	rice, a meal, food
한국2	배추김치	음차(추가 정보)	baechu kimchi (cabbage kimchi)
말이3	백설기	풀어서 설명하기	steamed white rice cake
서강4B	보신탕	풀어서 설명하기	dog soup
말이2	보약	풀어서 설명하기	restorative
말이3	보약	풀어서 설명하기	taking restorative tonics
배우4	보약	풀어서 설명하기	a restorative; tonic
한국4	부림	풀어서 설명하기	nuts eaten on the 15th of the first month of the lunar calendar
말이2	분식점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snack bar
한국2	분식집	풀어서 설명하기	a snack place
말이2	불고기	풀어서 설명하기	roast meat
서강1A	불고기	음차(추가 정보)	Bulgogi - broiled beef in a sauce with vegetables
서강1B	불고기	음차	Bulgogi
연세1	불고기	음차	bulgogi
한국1	불고기	음차(추가 정보)	6과 bulgogi(barbecued beef) 12과 bulgogi
서강4A	불닭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korean food, hot chicken dish
서강4B	붕어빵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identical goldfish-shaped cookies(used when 2 family members look very similar)
말이3	비빔냉면	풀어서 설명하기	cold noodle mixed with seasonings
서강4A	비빔냉면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Korean food, noodles with red pepper paste
말이1	비빔밥	음차	Bibimbap
말이2	비빔밥	풀어서 설명하기	rice hash
배우1	비빔밥	풀어서 설명하기	a rice hash
서강1A	비빔밥	음차(추가 정보)	Bibimbap - rice mixed with various ingredients

서강1B	비빔밥	음차(추가 정보)	bibimbap - rice mixed with various ingredients
연세1	비빔밥	음차	Bibimbap
연세3	비빔밥	음차	bibimbap
한국1	비빔밥	음차(추가 정보)	bibimbap(a dish of mixed vegetables and rice)
말이2	빈대떡	풀어서 설명하기	green-bean pancake
말이3	빈대떡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green bean pancake, lenfil pancake
말이3	빈대떡	풀어서 설명하기	gree-bean pancake
연세3	빈대떡	풀어서 설명하기	a mung-bean pancake
한국2	빈대떡	음차(추가 정보)	bindaetteok (mung-bean pancake)
서강1B	삼겹살	음차(추가 정보)	samgyeopsal - Korean grilled pork
한국2	삼겹살	풀어서 설명하기	(pork) fatback
서강1A	삼계탕	음차(추가 정보)	Samgyetang - chicken broth with ginseng
서강2A	삼계탕	풀어서 설명하기	hot chicken soup with ginseng
서강2B	삼계탕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hot chicken soup with ginseng [Korean food]
연세2	삼계탕	음차	Samgaetang
한국1	삼계탕	음차(추가 정보)	samgyetang(a kind of chicken soup)
배우4	생갈비	풀어서 설명하기	unseasoned ribs
서강3B	설렁탕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beef soup with rice [Korean food]
연세2	설렁탕	음차(추가 정보)	Sulreongtang(beef and rice soup)
한국3	설렁탕	음차(추가 정보)	Seolleongtang; a kind of beef soup with rice
배우2	소주	음차	soju
말이3	송편	풀어서 설명하기	rice cake steamed on a layer of pine needles
말이2	쇠고기전	풀어서 설명하기	grilled beef

말이3	수수경단	풀어서 설명하기	a kind of honey cake made of glutinous kaoliang
말이2	수정과	문화대체어 (추가 정보)	fruit punch(made of honey, dried persimmons, pine nuts and cinnamon)
서강4A	순대	음차(추가 정보)	Sundae(Korean sausage)
한국2	순대	음차(추가 정보)	sun-dae(Korean sausage)
서강2B	순두부찌개	풀어서 설명하기	pot stew with uncurled bean curd
말이3	송충	풀어서 설명하기	scorched rice-tea
말이2	식혜	풀어서 설명하기	sweet drink made from fermented rice
연세1	식혜	풀어서 설명하기	sweet rice drink
한국2	식혜	음차(추가 정보)	sik-hye(a Korean rice drink)
말이2	신선로	풀어서 설명하기	brass chafing dish
배우3	신선로	풀어서 설명하기	a cooking brazier
말이3	쭈떡	풀어서 설명하기	cake made of rice flour and wormwood paste
배우3	약주	풀어서 설명하기	a medicinal wine
배우4	양념갈비	풀어서 설명하기	seasoned ribs
한국4	오곡밥	풀어서 설명하기	a dish made with all five grains
말이3	육회	풀어서 설명하기	dish of minced raw beef
말이3	인절미	풀어서 설명하기	cake made from glutinous rice covered with bean powder
배우3	자장면	음차	Jajangmyeon
한국1	자장면	음차(추가 정보)	jjajangmyun(noodles with black bean sauce)
한국2	자장면	음차	Jajangmyeon
말이2	잡채	풀어서 설명하기	mixed dish of vegetables and beef
말이3	잡채	풀어서 설명하기	a mixed dish with vegetables beef and clear noodles
서강1B	잡채	음차(추가 정보)	Japchae - mixed dish of vegetables and sliced meat

서강2A	잡채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mixed vegetables and noodles dish(Korean food)
한국1	잡채	음차(추가 정보)	jabchae(a mixed dish of vegetables, meat, and noodles)
한국4	전	풀어서 설명하기	a fried dish
연세2	전병	문화대체어	pancake
한국3	전주비빔밥	풀어서 설명하기	boiled rice with assorted mixtures of Jeonju
서강4A	족발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food pig's foot
한국2	족발	풀어서 설명하기	(pig's)feet
배우2	죽	문화대체어 (추가 정보)	gruel, porridge
배우2	죽	문화대체어 (추가 정보)	gruel, porridge
한국4	죽	풀어서 설명하기	rice gruel
말이3	진달래화전	풀어서 설명하기	fried-azalea cookies
말이2	찌개	문화대체어	stew
말이3	찌개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a dish served in a pot, a pot stew
서강2A	찌개	문화대체어	stew
연세1	찌개	문화대체어	stew
연세3	찌개	문화대체어	stew
한국2	찌개	음차(추가 정보)	jjigae (a kind of stew)
한국3	청포묵	문화대체어 (추가 정보)	a jelly; green-lentil jelly
한국1	칼국수	음차 (추가 정보)	Kalguksu (a noodle dish)
한국3	칼국수	풀어서 설명하기	a handmade knife-cut noodles
서강3B	콩나물 국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bean sprout soup [korean food]
서강3B	콩나물 국밥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bean sprout soup with rice [korean food]
서강3B	탕	문화대체어	soup
서강2A	파전	혼합 (추가 정보)	spring onion pancake (Korean food)

서강3B	파전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green onion pan fried dish [Korean food]
한국4	파전	음차(추가 정보)	the Pajun(marine products flat cake)
말이2	한과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traditional cookies
서강2A	한식	직역	korean food
배우4	한우	직역	Korean cow
서강3B	한우	직역	Korean beef
서강3A	한정식	풀어서 설명하기 (추가 정보)	a Korean-style meal(with many side dishes)
서강3B	한정식	풀어서 설명하기	a Korean traditional meal involving many side dishes
한국2	한정식	풀어서 설명하기	korean traditional formal food
말이3	해물탕	혼합	seafood broth or soup
서강3B	해물탕	혼합	seafood soup
배우2	해장국	풀어서 설명하기	soup to relieve the hangover
배우2	해장국	풀어서 설명하기	soup to relieve the hangover
말이2	호박전	풀어서 설명하기	grilled pumpkin
말이3	흰떡	풀어서 설명하기	white, bar-shaped rice cake

ABSTRACT

A Study of the Translation of Vocabulary Intrinsic to Korean Culture

-On Korean-English Translation
in Korean Language Materials-

Hyemin Cho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Korean language materials that focus on cultural education are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but this is not the only noteworthy trend in the field today. In addition, Korean language programs at universities and their publishers, aware of the increasingly diverse nationalities of students, have recently begun releasing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different languages.

The translation of linguistic study materials provides real assistance to learners by helping them understand Korean more quickly. In so doing, this decreases the amount of time they have to spend studying. Korean cultural passages rendered in Korean in introductory texts are difficult to read for beginning learners who are not yet familiar wi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refore, translating these textbook

cultural explanations into the learners' mother tongue can assist their understanding of Korea by effectively reducing the disorientation felt when encountering an unfamiliar culture. Such translation of textbooks into the learners' native language allows them to learn more efficiently. This translation strategy offers learners assistance as they attempt to understand and adapt to a new culture.

There are a variety of kinds of cultural vocabulary included in the English and Korean version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but this paper only analyzes the translation techniques used with Korea's unique dietary vocabulary. Textbooks today use eleven translation methods in their handling of dietary vocabulary. Such diverse translation techniques all have their own strengths, but when there is no consistency between translation methods, there is the potential for a number of problems to arise.

The result of this analysis of the translation of dietary vocabulary is that there are three main problems. First, in every textbook published by Korean educational organizations, different translation methods are used for the same dietary vocabulary. There were even differences in the method used for the same term in textbooks used in different levels at a single organization. Second, the translation of dietary vocabulary was not always accurate. This was particularly the case in two translation techniques. Some of the text translated according to the explanatory method was inappropriate, and Romanization errors were found in a number of dietary terms that used the transcription method. Finally, Korean language materials were not translated by professional translators.

In general, it is impossible to set up rigid rules by which a text in a given source language must be translated into a given target language. In this paper, which is based on the Skopos theory and foreignizing

strategy, I take into account both the purpose of translating Korean language material and the user and ultimately recommend transcription with supplemental explanation as the ideal translation approach. This approach is the most succinct way to achieve communication while also preserv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By standardizing our approach to translate dietary vocabulary, not only do we avoid confusing the learner by using a variety of different translation methods, but we also communicate the necessary terms to the learner using the same expressions. The translation of learning material should be entrusted to a professional translator, and before the author contacts a translation firm about the job, he or she should pass along basic information about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instruction

Translation is not merely the task of changing the source language into the target language, but it is related to socio-cultural influence and the formation of cultural identity. In other words, it is inextricably tied to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Language learners should not be seen simply as people studying Korean culture, since in the future they will be the ones who carry Korean culture back to their own countries. When English-speaking learners spread Korean culture in their own countries, they will subconsciously rely on the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ulture that they saw in their study materials to explain Korean culture to people around them. Whether it will be possible for them to impart Korean culture intact to people abroad depends on whether Korean culture is translated using the domestication or foreignization approaches.